한국진로교육학회 제47차 추계학술대회

청년 고용,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일시 : 2018. 11. 21 WED 12:30~17:3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주최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7차 추계학술대회

청년 고용,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일시 : 2018. 11. 21 WED 12:30~17:30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

주최 :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개 회 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한국진로교육학회 제1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오늘 한국진로교육학회는 "청년고용,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의 대주제를 가지고 제 47차 추계학술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진로교육학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선・후배 학계 관계자 및 여러분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론과 실천, 그리고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이고자 노력하여 주신 역대 진로교육학회 회장님들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었고, 함께 도와주신 진로전담교사, 시도교육청 장학사, 국가정책입안자, 그리고 학자와 연구자 등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없이는 불가능하였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슈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용문제는 저출산 인구변화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많은 우려와 염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가 고용 지표는 지난 10월 기준,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고,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9개월째 하락세로 이어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0월 기준 실업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이며 실업률은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다 발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 좋은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대신 정부 주도형 단기 일자리만 늘어나는 양상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과연 학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깊게 고민하게 됩니다. 난세를 헤쳐나가는 지혜는 지난 역사의 발자취를 바로 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시절을 되돌아 보면, 당시, 우리 학회와 관련 국책연구소에서는 비자발적/자발적 실직자, 구직단념자, 그리고 잠재실직자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들의 고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진로교육체제를 재검토하였습니다. 국가 공공고용서비스의 새로운 틀을 닦으며 생애위기를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의 진로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문과 연구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를 요구하는 국가고용・교육정책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난 외환위기는 학문과 정책적으로 고용・교육 분야에 일대 혁신을 이끌며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고용・교육 분야 현황을 점검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지를 성찰하고, 실직 청년들이 진로 희망과 재도전의 힘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의 학술대회는 청년고용의 현황과 정책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진로교육으로부터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BACK TO THE BASIC) 진로교육 체제와 역할, 그리고 그 가치를 성찰하며 청년 고용 문제를 대응하는 바른 지혜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초중등교육에 집중된 진로교육으로 부터 평생학습시대 고등교육단계에 있는 청년과 중고령 평생학습자들을 포함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고용서비스와의 연계까지를 지향하는 진로교육으로의 획기적인 체제 전환을 디자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실천과 교육・훈련・복지・고용 등 공공정책 실현의 핵심 역할로 진로교육・진로지도・진로상담이 작동되도록 학문과 정책적 발전을 지원하는 책무가 바로 우리 학회의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7차 추계학술대회는 많은 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前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시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셨던 한성대학교 박영범 교수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주제와 사례발표, 토론의 여러 진로교육 전문가님들, 사회와 좌장을 맡아주신 학회 임원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파트너로 진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원장님에게도 머리 숙여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학술대회가 청년들의 고용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되돌리는 진로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학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 11. 21

한국진로교육학회 13대 회장 이지연(**李智妍)**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한국진로교육학회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리고 청년 고용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 고용이 중요한 상황에서 진로교육을 통한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의미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사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좋지 않은 일자리에 대한 현상만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관련 직종에서도 구인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혹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구직 단계에서 특별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인을 위한 공공고용서비스까지를 아우르는 진로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핵심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는 국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진로교육의 역할을 검토하고, 고등교육과 고용서비스 부문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예방적 접근으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례발표에서는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온라인을 통한 청년지원 정책 전달체계, 대학에서의 청년 취업 관련 실패와 부적응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청년 고용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과 기여, 그리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논의와 학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진로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정책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특별히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박영범 한성대교수님, 발표자이신 채창균 박사님과 김한준 박사님, 그리고 사례발표자와 여러 토론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학술대회가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논의된 사항들이 앞으로 청년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로교육의 역할을 증진하고 관련 국가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나영선**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입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 제47차 추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나영선 원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송병국 원장님, 그리고 이처럼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지연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월 4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률은 17년 기준 67%로 OECD 평균인 68%에 근접하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2.1%로 OECD평균인 53.3%에 비해 10%로 이상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개선해야 할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 일자리 수요공급의 미스매치에서 기인한 '청년실업의 증가'를 지적하며, 평생에 걸친 커리어를 설계하는 청년기의 실업은 이후 지속적으로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력효과(hysteresis)'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률 수치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층이 진입하게 되는 일자리의 질적 저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청년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있는 데 반해, 현실에서 이들 청년층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인 저하 문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하고도 청년 스스로 근로여건에 불만족하며 자발적으로 실직을 선택하게 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수의 청년이 스스로 취업을 단념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은 청년층을 노동시장의 취약계층 중 하나라는 표현을 가져오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기업・공기업 등으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나누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청년층은 장기적인 취업준비활동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경주하게 되면서 진입이 지연되고 있기도 합니다.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금전적 수입의 원천이라는 경제적 의미와 사회적인 역할 수행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심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 선택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직업세계의 변화로 인해 청년층은 그 어떤 세대보다 다양한 직업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에 자신의 장기적인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에 진출하는 준비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의 심각한 고용시장의 현실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직업이 가지는 다양한 맥락적인 의미나 자신의 특성에 대한 숙고보다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준비에 생애 가장 빛나는 청년기를 모두 소진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쉽지 않은 고용상황이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평생 '일하는 삶'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이기에 청년층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이들의 고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정책서비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진로교육은 평생에 걸친 개인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를 갖기에 청년고용문제의 완화를 위한 길찾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고용정책과 서비스의 허브 기관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워크넷과 오프라인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정부의 고용정책 및 서비스를 안내하고 이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업심리검사와 프로그램, 그리고 직업세계 정보와 같은 개인 진로탐색과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부터 청년대상 고용정책모니터링과 및 청년 고용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수행, 그리고 청년들의 고용지원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센터의 개발과 제공까지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고용지원을 위한 정책허브 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의 현실 속에서 '평생의 길찾기'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청년층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들은 물론 여러 진로교육 전문가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청년고용,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를 통해 청년고용 문제 완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현장 및 학계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된 이번 진로교육학회의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 적절하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의 이 자리가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되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행사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재흥**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송병국입니다.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제47차 추계학술대회를 축하드리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지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한국진로교육학회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후원자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나영선 원장님과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재흥원장님께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의 주제는 '청년고용,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이슈인 청년고용을 다루어 시기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타당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직업능력개발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이신 한성대학교 박영범교수님께서 맡아주셔서 더욱 의미 있고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가청년 일자리 정책의 빛과 그림자를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발표해 주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채창균 박사님과 청년실직 예방을 위한 진로교육에 대해 발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실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토론과 사회, 그리고 사례발표를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1950년대 이후 최빈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평화적 촛불저항과 민주적 방식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을 보고 전 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례 없는 무역 경쟁, 노동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산업구조조정의 실패 등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경제적 불평등 악화와 고용문제/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층 고용이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처방들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통계수치는 생각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인 양의 측면에서 일자리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선호도의 쏠림현상이 더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이 한정된 일자리만을 바라보고 한없이 취업재수를 하거나 종국에는 취업 자체를 포기하고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직장생활/직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직업생활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부분적인

측면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떤 직장도 머리만 필요하거나 가슴 또는 손발만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모든 직장에서는 머리를 쓰는 일도 해야 하고,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일도 해야 하고, 때로는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움직여서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장(업)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창조하는 재화나 용역이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발전하고, 그 필요성이 사라지면 문을 닫는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직장(업)생활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도록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정확하고 신뢰로운 직업(장)과 진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진로교육이 청년고용을 비롯해 장년고용과 노년기 고용 등을 위해 전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중추내용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노후의 삶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평생 동안 중소기업에서만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게 별도로 '연금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연금하면 국가의 공적자금이 한없이 투입되는 제도로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킬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산업이 살고, 일자리가 확충되려면 결국 중소기업에 유능한 청년들이 입직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입직을 유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연금제'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국민연금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금제도를 마련한다면 분명히 보다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택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직간접 혜택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원들을 모으고 나중에 노인기초연금에 투입 될 재원까지 감안하면 적절한 중소기업 연금제도가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유능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습니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도 따지고 보면 중소기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말로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화하여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소기업도 살리고, 청년층 일라지도 늘리는 길이며, 결국 국가 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찾아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의미 있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병국**

행 사 일 정

시간		발표 및 내용
12:30~13:30		【접 수】
제1부 (13:30~14:40)		사회 **장현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3:30~13:50	20′	【개회식】 **개회사** 이지연 (한국진로교육학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축 사**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3:50~14:30	40′	【기조강연】 **청년 고용(취업),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강연자 : 박영범(한성대학교 교수)
14:30~14:40	10′	휴 식
제2부 (14:40~16:40)		좌장 **양종국**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14:40~15:10	30′	【주제발표 1】 **국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진로교육의 역할** 발표자 :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 · 자격연구본부장)
15:10~15:40	30′	【주제발표 2】 **청년 실직의 예방적 접근 진로교육 :** **초중등단계를 넘어 고등단계와 공공고용서비스로 확대** 발표자 :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진흥실장)
15:40~16:30	50′	【주제 토론】 • 주제1 토론 : 문승태 (순천대학교 농업교육과 교수) 주혜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장) • 주제2 토론 :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현주 (곡정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6:30~16:40	10′	휴 식
제3부 (16:40~17:30)		
16:40~17:10	30′	【사례 발표】 • **온라인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 발표자 :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구축TF팀장) • **청년 취업 관련 실패 및 부적응 사례** 발표자 : 김희수 (한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장 교수)
17:10~17:30	20′	【종합 토론】 좌장 :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17:30~	【폐 회】	

차　　례

개　회　사 : 이지연 (한국진로교육학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 iii
축　　사 :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v
이재홍 (한국고용정보원장) ····· vii
송병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ix

기조강연. 청년 고용(취업),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박영범(한성대학교 교수) ····· 1

주제발표 1.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 ····· 15

주제발표 2. 청년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
김한준(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장) ····· 37

주제 토론
문승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교수) ····· 57
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장) ····· 63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67
정현주 (곡정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 71

사례 발표 1. 온라인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구축TF팀장) ····· 77

사례 발표 2. 청년 취업 관련 실패 및 부적응 사례의 이해
김희수 (한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장 교수) ····· 99

기조강연

청년 고용(취업),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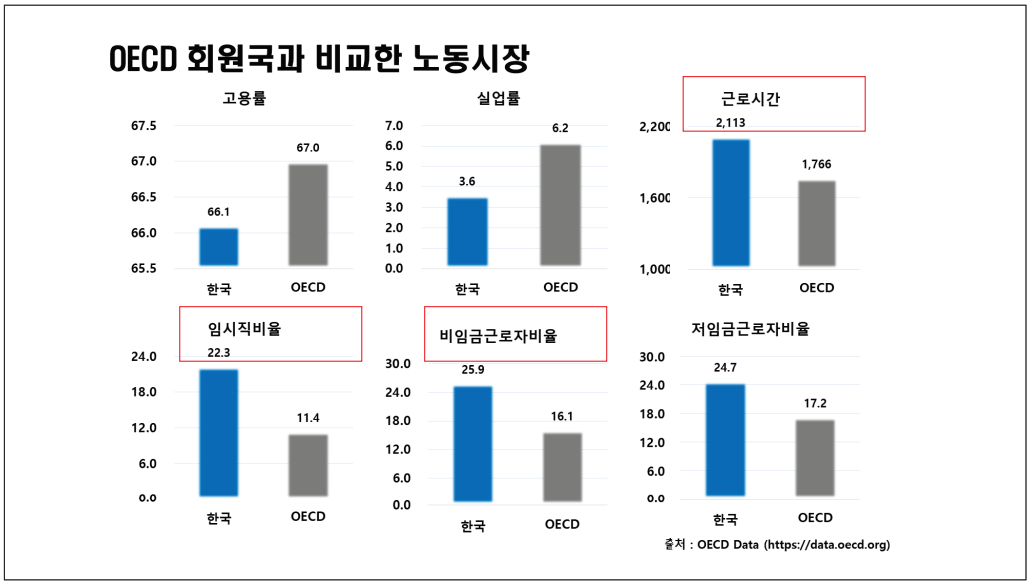
청년 고용(취업), 진로교육에서 길을 찾다

2018

박 영 범
(ybpark@hansung.ac.kr)

I. 일자리 상황은? 그리고 미래는

- 일자리 정부에서 악화되는 일자리 사정
- 四五정 세대의 비극
- 최저임금 1만원과 주52시간제
- 외국인 근로자 추가 도입 요구하는 중소기업
- 일자리 없어 구직 포기하는 청년
- 經斷女, Working Mom의 비애
- 4명중 1명이 죽고 싶다는 노인
- 반복되나 효과가 없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정부 정책
- 구조개혁이 필요한 한국경제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40대 취업자 35개월째 마이너스 … 실업률 13년만에 최악

매일경제

"아빠 햄버거집 면접 간다"… 알바로 몰리는 4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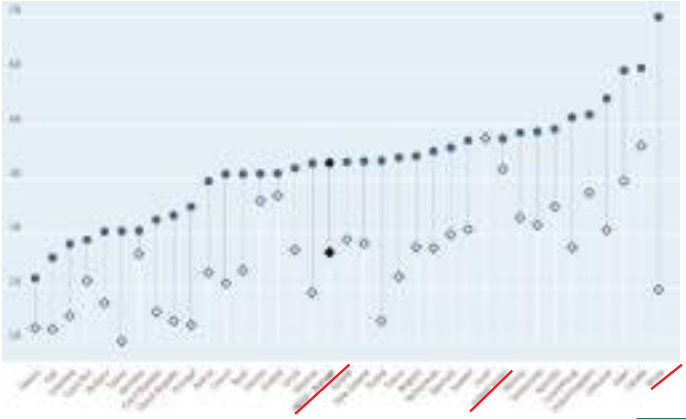
불황 최저임금 週52시간 – '고용 모세혈관' 영세 中企부터 말라간다

청년 일자리 없어 난리
中企 일손 못구해 비명

어느새…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

쭉쭉 늘어나는 니트족… 20대초 고학력 남자 '놀멘놀멘'

OECD국가별 고등교육 연령별 이수율 비교



국가	25~34세	55~64세	gap
KOR	70.0	19.7	50.3
POL	43.5	13.9	29.6
SVN	43.0	19.1	23.9
FRA	44.0	22.1	22.0
PRT	35.0	13.1	21.8
LUX	51.4	30.7	20.7
JPN	60.1	39.7	20.4
TUR	30.5	10.2	20.3
GRC	41.0	20.9	20.1
SVK	33.4	13.9	19.5
NLD	45.2	27.4	17.8
ESP	41.0	23.2	17.8
CHE	48.8	31.6	17.2
CZE	32.6	15.5	17.0
BEL	44.3	27.5	16.8
AUT	39.7	22.9	16.8
SWE	47.2	30.8	16.4
DNK	45.9	29.9	16.0
NOR	48.6	33.0	15.6
NZL	43.4	28.2	15.2
GBR	52.0	37.6	14.4
CAN	60.6	46.2	14.4
ISL	43.3	28.9	14.4
AUS	49.3	35.0	14.3
ITA	25.6	12.4	13.2
HUN	30.4	17.2	13.2
MEX	21.8	12.6	9.2
USA	47.5	41.9	5.6
EST	41.0	36.1	5.0
DEU	30.5	26.3	4.2
FIN	41.1	37.0	4.1
ISR	47.4	47.6	-0.2

출처 : OECD(https://data.oecd.org), 2016

9

경향신문

노인 4명 중 1명이 죽고 싶다고 하는 한국 언제까지

65세 이상 주요국 상대적 빈곤율 2016년

한국	43.7
리투아니아	22.9
스투아니아	15.2
영국	10.0
이탈리아	7.5
벨기에	6.3
스페인	4.9
네덜란드	3.0
프랑스	2.3
덴마크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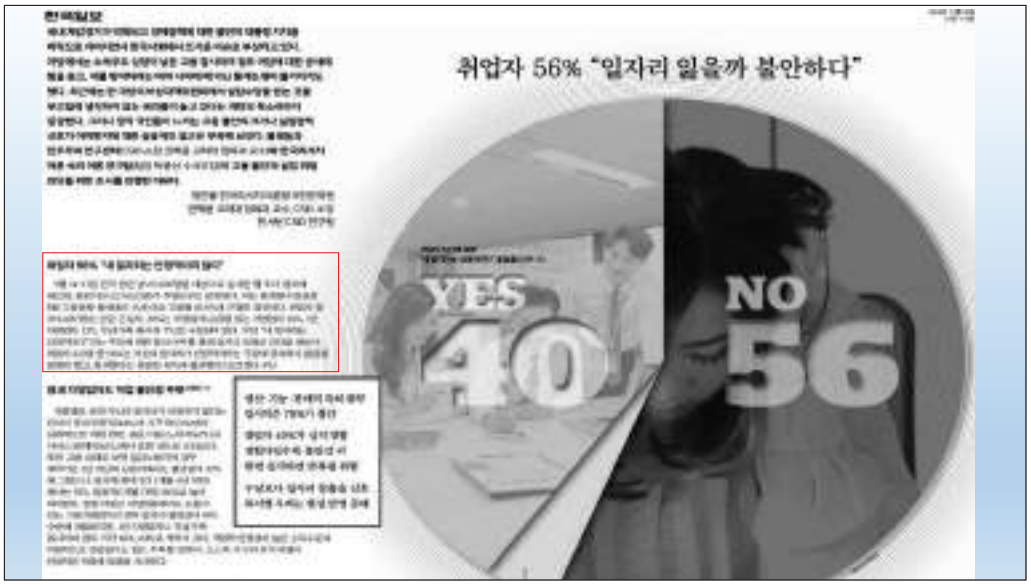
직장생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를 바꾸자 ⑥합리적 대안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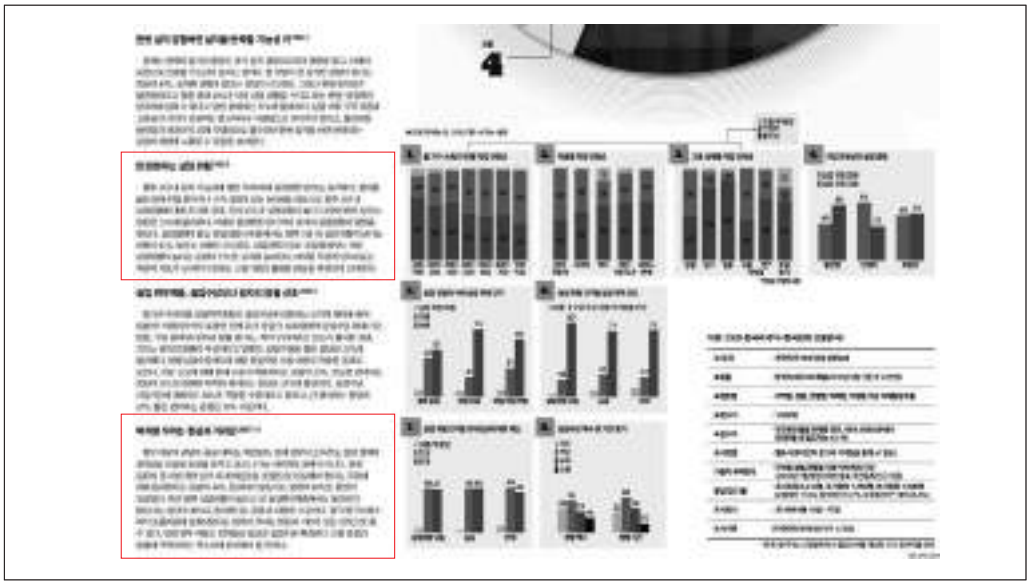
"직장생활, 굵고 짧게 아니라 가늘고 길게"

청년연장법서 의무화한 '임금체계 개편' 사문화 … "공공부문부터 임금수준과 내역 공개해야"

'알파고 쇼크' 2년… AI로 삶은 편해졌지만 일자리 불안은 커져



취업자 56% "일자리 일을까 불안하다"



한국경제
"소득 3만달러 시대
주력산업 재편 시급"
3.5
3.0
2.5
2.0
도전 2019
제조업 시대에 멈춘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없인 4차혁명도 없다

서울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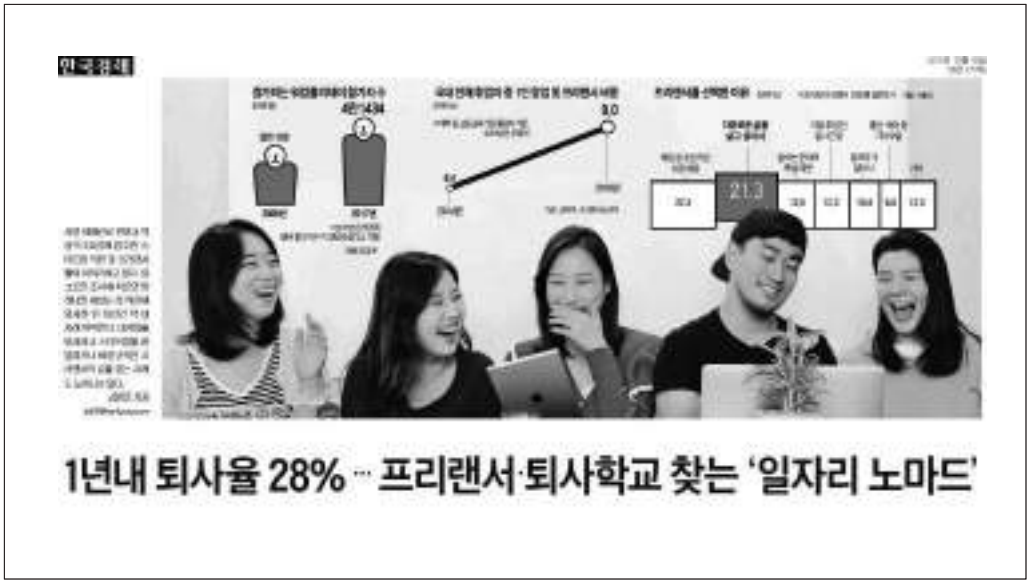
발표대로 됐으면 이미 완전고용…부풀리기에 국민들도 "안믿어"

II. 평생 직업의 시대를 넘어서

- 심화되는 직장내 세대 갈등
- 변화하는 業의 의미: 자아실현과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층
- 문과 출신이라서 죄송합니다
- 인생 이모작, 삼모작이 필요한 노년층

서울신문

"의미 없지만 라디니까" "부장 의중 맞춰"
비효율·삽질·노예… 기업 업무방식 45점


한국경제

1년내 퇴사율 28% … 프리랜서·퇴사학교 찾는 '일자리 노마드'

세계 내일신문

5년새 바뀐 대기업 인재조건

"도전정신→소통·협력"

국내 주요 기업이 꼽은 인재의 첫 번째 덕목이 5년 전에는 "도전정신"이었으나 올해는 "소통과 협력"으로 바뀌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마침에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향하는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소통과 협력"을 꼽은 기업이 83개사로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전문성(56개사), 원칙과 신뢰(48개사), 도전정신(48개사), 주인의식(44개사), 창의성(43개사), 열정(33개사), 글로벌역량(31개사), 상생력(22개사)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분석은 100대 기업에 각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 인재상을 토대로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올해 조사 결과를 5년 전과 비교해보면 큰 변화가 있다고 봤다. 5년전 조사에서 "소통과 협력"은 7위였으나 올해 1위가 됐고, "원칙·신뢰" 덕목도 같은 기간 5위에서 3위가 됐다.

5년 전에는 인재상 1위 덕목이었던 "도전정신"이 올해는 4위로 밀려났고, "주인의식"도 2위에서 5위로 떨어졌다.

대한상의는 "직원은 상사를 '꼰대'로 연식하고, 상사는 직원을 자기 것만 챙기는 '요즘 애들'로 치부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등 기업 내 소통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육성하는 데 소통과 협력을 주요 역량으로 꼽는 이유"라고 밝혔다.

다만 업종별로 원하는 인재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직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가장 많이 꼽았고, 도소매업과 부동산·운수업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과 건설업의 경우 "주인의식"을 갖춘 인재를 선호했다.

연합뉴스 배정호 기자

서울경제

두번째 스무살을 시작하다

고용 절벽속 새 길 찾는 사람들

중견인 "경험은 나누들지 않는다" 불혼증 전유물 스마트업 창업서 작가·DJ 등 전화예술까지 도전 제2 직장·인생 개척 '인스타라'

III. 청년취업과 진로교육

한국일보

| 여 | 성 | 을 | 열 | 여 |

신직업, 직업의식, 진로교육

국민일보

시론

자유학기제에 거는 기대

[illegible]

누구나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학력주의를 시정하고 개혁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에 편승해 진학성과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는 탓도 크다.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졸업을 앞둔 10월쯤 장래 10년 후 자신들의 모습을 적어내라는 설문에 학생 절반 정도가 백지로 내면서 그 이유로 수학능력시험 결과가 나와 진학하는 대학과 학과가 정해진 후에야 알 수 있다고 적었다고 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지난 40여년간 교육현장의 변치 않는 모습이다.

자유학기제는 통상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별도의 학기로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탐구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덴마크의 가교학년제(Bridge year), 영국의 쉼표학년제(Gap year) 등이 자유학기제가 지향하는 외국의 유사제도이다. 외국의 교육현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지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자유로워져 창의적인 탐구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고민을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고졸취업 활성화 및 진로교육 강화가 자유학기제 시행과 선순환적 구조로 결합될 때 '선취업-후진학' 생태계가 정착되어 청년실업의 근원적 원인의 하나가 해결될 것이다. 특히 현 정부 핵심교육정책 중 하나인 '개개인이 학력이 아닌 역량에 의해 평가받는 사회 형성'의 기저가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체제 구축도 자유학기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과 진로체험의 장(場)을 지역사회의 기업체와 단체들에서 제공해 줘야 한다. 자유학기제 시행의 책임을 맡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처영역을 넘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세에서 협조해야 한다.

끝으로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우리 교육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라는 공감대를 일선 현장에서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행정당국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10.1*35.3)cm

東亞日報

청년드림 진로교육이 미래다 〈10·끝〉 선취업 후진학도 좋은 시도

대학들이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생과 가족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합격생은 축하를 받지만 이 가운데 얼마만큼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할 때 밝게 웃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대학 졸업자의 절반은 졸업 후 6개월 안에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했다. 대학 휴학생 100만 명 시대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절대로, 휴학하시길'이란 문구를 내건 휴학컨설팅 업체까지 생겼다. 미래의 노동시장 상황이나 자신의 적성에 대한 고민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에 가는 우리 사회의 '대학 열풍(university fever)'이 만든 슬픈 현실이다.

정부가 고졸 취업 성공시대를 강조하면서 선취업 후진학을 하려는 고교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가 중고교에 진로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관련 교재를 개발하는 등 진로교육에 투자를 하는 모습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청소년이 진로를 바르게 선택하는 풍토가 조성되지는 않는다. 국민, 특히 학부모의 의식수준이 직업세계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탓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50%가 넘지만 실제로는 70% 이상의 학부모가 교수, 의사, 법조인 등 이른바 '사'자 직업을 바랐다. 부모와 자녀의 희망 직업이 일치하는 비율도 22%에 그쳤다.

직업 체험은 청년백수 무기력증 '막을 수 있는 특효약'

요즘 특성화고에 가려는 10대는 많아졌지만 전통적인 직업관을 가진 부모의 반대로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부모가 미래의 직업세계를 공부해, 자녀의 적성과 소질을 이해하고 진로를 같이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할 때 직업세계에 대한 경험은 필수적이다. 1974년 전환학년제를 도입한 아일랜드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학생이 원하면 1년 동안 봉사활동과 직업 체험을 한다. 국내에 이를 전면 도입하기에는 제약이 많지만 우리도 청소년 직업 체험 기회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올해 개관한 잡월드가 거의 유일하다. 기업이 단기 인턴제도를 활용해 청소년의 직업 체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 미래의 인재 양성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대학도 아일랜드와 같이 학생에게 학교를 개방하여 전공별 교과과정 체험 기회를 줘야 한다.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인턴 혹은 도제제도를 통해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적극적으로 한다. 여러 연구 결과 이런 나라에서는 기업이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에 쓰는 비용보다 거두는 수익이 많았다. 진로교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미래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녀의 올바른 진로 선택을 돕는 학부모의 의식 전환, 청소년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자세 전환이 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 찬 20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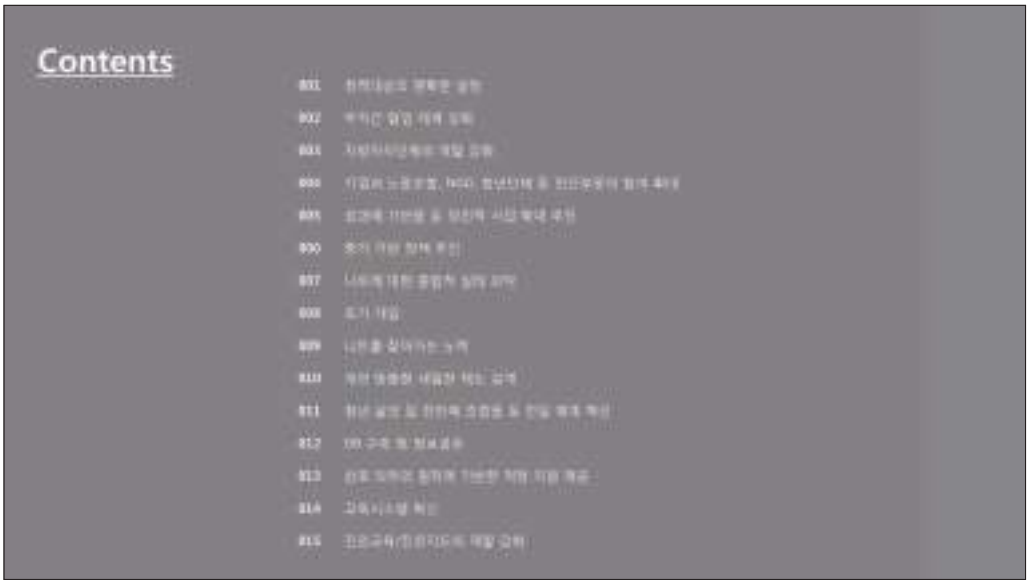
(36.7*6.8)cm

주제발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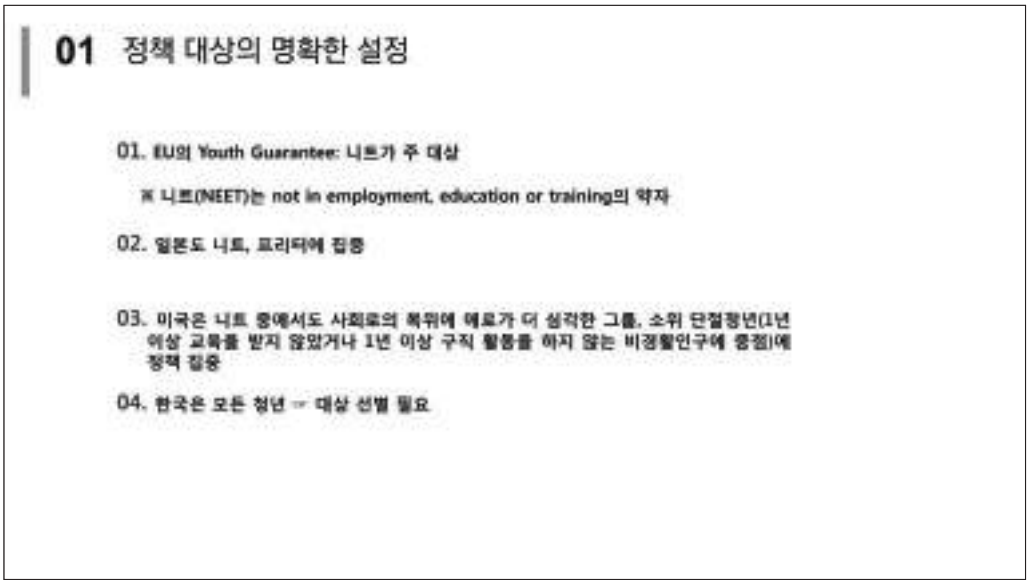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
2018. 11.


Contents

00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0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01. EU의 Youth Guarantee: 니트가 주 대상
※ 니트(NEET)는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약자
02. 일본도 니트, 프리터에 집중
03. 미국은 니트 중에서도 사회로의 복귀에 애로가 더 심각한 그룹, 소위 단절청년(1년 이상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활인구에 중점)에 정책 집중
04. 한국은 모든 청년 → 대상 선별 필요

0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05. 정책 대상으로 니트의 적절성

✓ 문제의 심각성

저 ⟶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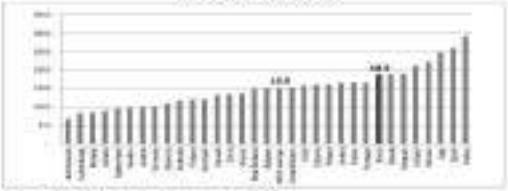
취업자 → 비경제활동인구(교육훈련 중) → 실업자(교육훈련 중) → 니트

0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06. 우리도 OECD 기준에 따른 니트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할 것인지?

- 청년니트 비율은 18.5%로 OECD 평균(15.0%)보다 3.5%p 높음

청년층의 니트비율(단위: %)



자료: OECD(2014), Education at a Glace 2014

- 대졸 고학력 청년이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이들 모두가 니트로 분류되지만, 이들이 직면한 문제의 성격은 교육이나 훈련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문제. 청년 개인에게 기회 제공의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 ⇒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특징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청년고용 상황 더 악화시킬 우려

0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07. 현실은?

취업률 참여자의 현재 일자리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인 경우가 19.6%, 비참여자의 29.7%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은 수치

취업률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취업 실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0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08. 지원대상

① 취업준비 저소득 가구 출신 청년: 취업준비에 필요한 금융제약 완화를 통한 기회의 보장 필요

② 고졸 니트: 숙련 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③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준비를 포기하려는 취업준비생: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 준비 지속, 그러나 다수가 실패(낮은 성공 확률). 이 기간 장기화되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 이 트랙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필요

④ 기혼여성: 육아, 가사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상황

002

부처간 협업 체계 강화

02 부처간 협업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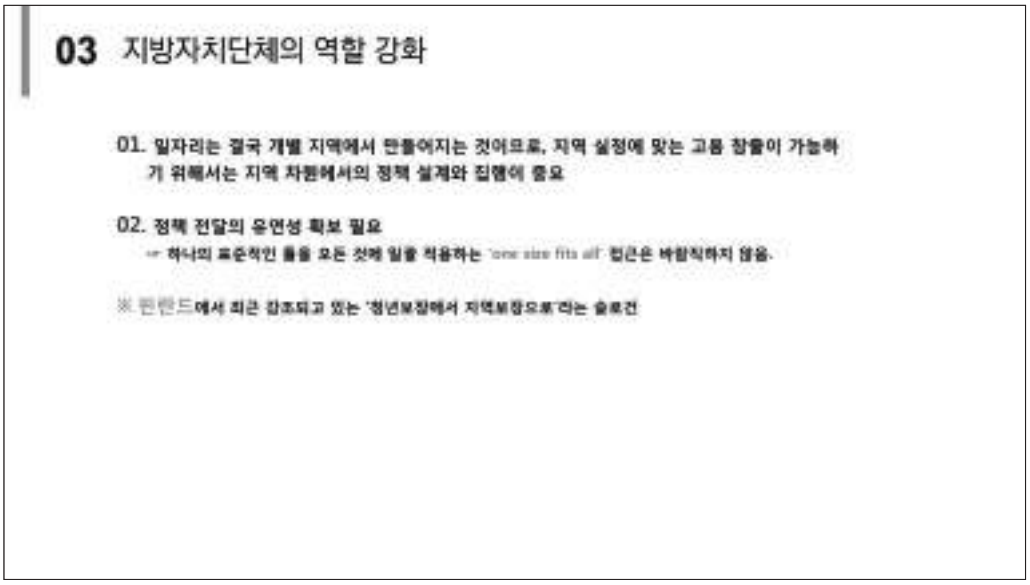
01. 청년 니트 문제는 교육문제, 노동시장 문제, 건강 문제, 사회복지 차원의 문제, 사회적 일탈 행위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특정 영역만을 담당하는 특정 부처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 해결 곤란

02.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책임과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년 관련 정책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한편,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련 부처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미국의 청년정책 범부처 합동 그룹(the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이하 IWGYP): 행정부처가 각자의 독립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 여러 행정부처의 자원을 조율하고 함께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 아래에 범부처 협동기구를 설립. 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상공부, 교통부 등 12개 연방부처와 다수의 연방 기관 참여, 이 기구의 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겸임

※ 핀란드의 원스톱 안내 센터(One-step Guidance Center): 같은 목표아래 여러 부처가 협업할 수밖에 없도록 공동의 플랫폼을 구축

00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0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01. 일자리는 결국 개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창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설계와 집행이 중요
02. 정책 전달의 유연성 확보 필요
→ 하나의 표준적인 틀을 모든 것에 일률 적용하는 'one size fits all'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음.
※ 핀란드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청년보장에서 지역보장으로'라는 슬로건

004

기업과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04 기업과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01. 효과적으로 수립,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 각 파트너들의 역할, 책임, 명확한 목표와 타깃 설정, 충분한 재원 확보, 정기 모임 및 상호 관심과 목적에 따른 보다 작은 규모의 워킹 그룹 운영, 인센티브 구조(재원 등) 설계 등과 같은 파트너십 디자인이 매우 중요

02. 특히 NGO와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어야

※ 핀란드: 핀란드 청년보장은 공무원, 민간 기업, 시회.시민조직, 청년들의 협력을 토대로 하는 민관 참여 모델(public-private-person-model)임. 핀란드의 청년보장 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 청년보장 워킹 그룹에는 교육문화부, 고용경제부 등 중앙 부처뿐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노조, 고용주 협회, NGO , 청년단체 등이 포함되었음. 특히 120여 개의 청년 단체를 청년연합으로 조직하여 청년을 대표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청년연합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정책입안자에게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였고, 청년연합이 청년보장의 정책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게 되었음.

04 기업과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03. 청년을 위한 보다 양질의 기회 제공을 위해 기업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

- PES 내 기업과의 컨택트 포인트로서 고용주 담당 직원 임명.
- 고용주단체의 전국 및 지역 차원의 청년정책 운영위원회 참여
- 청년고용정책에 협조적인 기업 인증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
- 기업의 다양한 참여 메뉴 제공(채용박람회 참여와 같은 쉬운 것에서부터 양질의 고용 기회나 도제 제공 등과 같은 어려운 것까지)

04 기업과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04. 기업이 보다 양질의 기회 제공을 확대하도록 임금 보조금 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

-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건부로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원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
- 사중손실과 대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집단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 특히,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층(대부분 경우 저숙련 청년,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고숙련 구직자일수도)에 타겟팅하여야
- 보조금 지급 시 기업에서 청년이 자기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 기간이 보장하여야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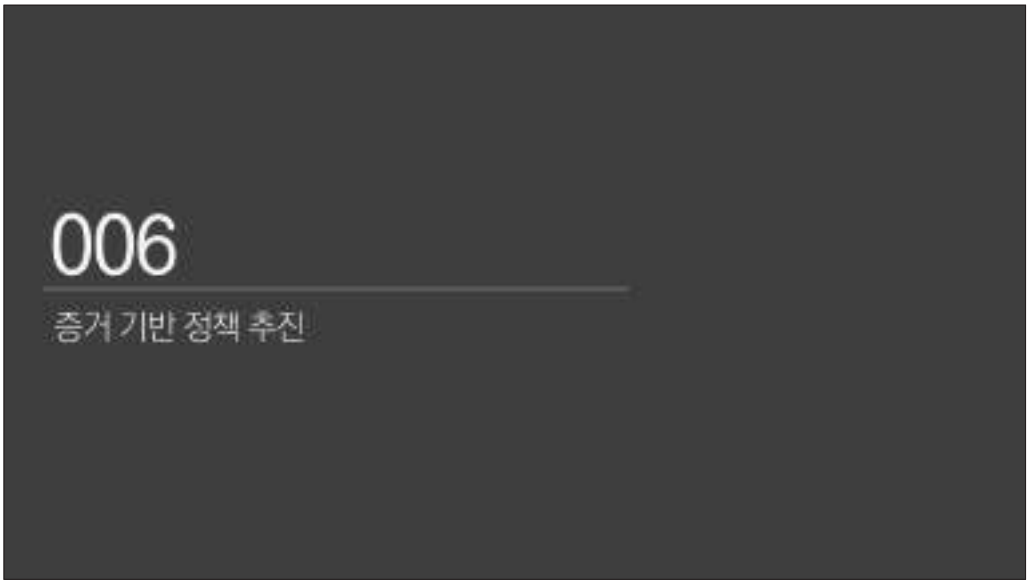
성과에 기반을 둔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

05 성과에 기반을 둔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

01. 효과성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처음부터 사업을 대규모로 실행하는 것은 부적절

02.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할 때, 일단 파일롯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뒤, 그 성과를 판단하여 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정책의 전면적 추진보다는 시범사업 형태로 먼저 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관행이 명확히 존재



06 증거 기반 정책 추진

01. 모든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통한 증거기반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추진하여야 함.

02.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게 양적, 질적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런 성과 지표의 주기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련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구축 시 가능하면 행정 DB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함.

03. 미국 등의 사례에서 확인되듯이 다양한 (준)실험적 접근을 통해 보다 엄밀한 정책 평가를 시도할 필요

007

니트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

07 니트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

01. 니트의 내부 구성은 매우 다양 ☞ 하나의 단일한 정책적 접근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며, 니트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별 니트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대책이 필요. 이러한 대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담 단계에서 개별 니트의 특성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지원 제도의 틀을 올바르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니트의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독일부르크: 2,500명의 니트에 대해 심층 조사한 후, 이를 행정 DB와 종단적으로 연결하는 니트 연구(NEET Study)를 통해 니트에 대한 동학적 파악(누가 왜 니트에서 탈출하고, 누가 왜 그대로 머무는가)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니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에 대한 접근성과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몰타: 니트 센서스로 니트에 대한 전수 면접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니트를 핵심 니트, 유동적 니트, 중간적 니트로 구분

008

조기 개입

08 조기 개입

01. 니트가 된 시점부터 바로 정책 개입이 이루어져서 니트 상태의 장기화를 막아야 함.

- 니트 상태가 장기화되면 낙인 효과로 인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

02. 보다 바람직하게는 학교 교육 단계에서부터 니트화 가능성을 사전 인지하여 니트가 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가칭)'니트 위험성 지수'와 같은 것을 개발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니트화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진단, 파악하고,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방적 교육을 즉시에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영국 웨일스: 니트위험성지수(RONIs, a set of Risk of NEET Indicators)를 개발. 이를 통해 학교 단계에서 니트 위험성이 높은 학생들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고등학교 선생과 PES 직원 등이 활용하고 있음. 니트위험성지수에 따르면 낮은 학업성취도, 무단결석, 비행, 약물 문제, 혼전 임신, 저소득 가구 자녀, 사회적 상위 욕구가 낮은 가구 자녀 등이 니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009

니트를 찾아가는 노력

09 니트를 찾아가는 노력

01. 많은 니트가 정책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정책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European Commission, 2016).
☞ 니트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니트가 정책을 찾아오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니트를 먼저 찾아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함.

- 상당수 니트의 경우 그 특성상 사회활동 자체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
- EU의 경우에도 청년보장제도에 등록한 니트는 전체 니트의 37.5%에 불과하며(2015년), 특히 가장 취약한 청년들의 등록이 더 어려운 상황

09 니트를 찾아가는 노력

※ 핀란드: 전체 니트의 70% 이상이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청년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원스톱의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지원 원스톱 안내 센터의 활약이 큰 영향을 미쳤고, 청년 아웃리치 활동, 즉 니트를 찾아가는 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도 작용

※ 불가리아: PES에 등록하지 않은 니트의 발견 및 활성화를 위해 대학 졸업 후 실업 상태의 청년(18-19세)을 청년중재자(Youth mediators)로 육성한 후, 이들이 니트와 PES 등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

※ 폴란드: 자발노동단(the Voluntary Labour Corps)을 구축, 전국적으로 738개의 유닛이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노동·사회정책부 소속, 학교, 교육청, 지방정부, 교회 등과 협력하여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찾아내고 교육과 고용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아일랜드: 길거리상담사(Street Counselors)를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저녁 시간에 거리를 다니면서 어려운 처지의 청년들을 찾아 상담하며, 이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010

개인 맞춤형 세밀한 제도 설계

10. 개인 맞춤형 세밀한 제도 설계

01. 개별 니트의 세부 특성은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역량 정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건강 상태, 교육 수준, 생활 습관, 구직 의지, 취업 희망 여부, 사회적인 고립 정도, 범죄 유무 등 여러 변수들의 조합만큼이나 다양
   ☞ 개별 니트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개인 맞춤형의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

02. 개인 맞춤형의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1차 컨택트 포인트가 중요
   ☞ PES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기구의 확충 및 역할 강화가 중요
   • 1차 콘택트 포인트에서 상담, 진단 등을 통해서 개별 청년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이나 지원책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

※ 프랑스: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에서는 특별히 훈련된 개인 카운슬러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카운슬러 1명당 연간 50명 이내 청년 니트를 담당하게 되며, 이러한 업무 부담은 카운슬러들이 통상 담당하는 인원의 절반 수준

011

청년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혁신

11. 청년의 삶이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혁신

01.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맞춘 청년 전용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니트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제고에 매우 유용

- 기존 PES는 고용과 교육훈련문제에만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만이 아닌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기에는 문턱이 다소 높고 거부감도 적지 않음
- 또한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 건강,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결합하여 청년 니트라는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도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

11. 청년의 삶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혁신

※ 핀란드: 2015년부터 핀란드는 고용경제부 주도로 청년을 위한 원스톱 안내 센터(One-stop Guidance Center)를 운영 중. 청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5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설치하고, 타 기관(PES,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무소, 교육기관,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 소속 여러 전문가를 같은 센터에 두었으며, 이들 기관은 장소적 통합을 넘어 동일한 목표와 브랜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물론 센터의 위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 프랑스도 지역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고용, 훈련, 건강,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음.

※ 일본: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하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일본의 경우 출입 대상자가 니트나 히키코모리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 반면 핀란드의 경우 꼭 니트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니트 청년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

※ 룩셈부르크나 루마니아 등도 청년 전용 센터를 구축

012

DB 구축 및 정보 공유

12. DB 구축 및 정보공유

01. 정책에 대한 엄밀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DB 구축이 중요

- DB 구축 시 가능하다면 DB의 정확성 제고와 DB 구축에 따른 비용 최소화를 위해 엄정 DB를 적극 활용할 필요
- 여러 행정 DB를 연결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
- 장기적인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니트들을 장기 추적하는 형태의 DB 구축도 요구

02.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파트너들간의 청년 니트에 대한 정보공유도 중요

- 청년니트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을 식별하는 차원 확보가 전제 조건이며, 이런 민감한 자료의 기관 간 공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기관 간 강한 파트너십과 상호 신뢰관계가 중요
-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완화될 필요

※ 뜬한도: 기초교육을 이수했지만 이후 교육 단계로 진학하지 않은 청년과 직업교육이나 일반 상위중등 교육에서 중퇴한 2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정보를 교육제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 군복무를 면제 받았거나, 중단한 25세 미만의 청년에 대한 정보를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청년 니트의 파악과 접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

013

상호 의무의 원칙에 기반한 적정 지원 제공

13. 상호 의무 원칙에 기반한 적정 지원 제공

01. **개별화된 진로 지도 및 실행 계획(Action Plan)과 더불어 적절한 지원(금전적 지원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을 활성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며, 이러한 지원은 상호 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함.**

- EU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청년보장제도는 결과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야심 찬 정책이지만, 이런 정책은 자칫 대중의 실망과 좌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 훈련 등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책임감 또는 행동도 동시에 강조하여야만 하는 것임.

13. 상호 의무 원칙에 기반한 적정 지원 제공

※ 프랑스: '청년을 위한 보장제도'를 운영 중인데, PES와 사회복지센터, 교육부, 인근합지협회 등이 협력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자산조사를 거친 후 수당을 제공. 동시에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의 원칙에 기반을 둔 1년 계약이 이루어짐. 그 계약에 따라 6~8주에 걸친 기본 스킬 함양 이후에 맞춤형 상담이 제공되고, 여러 지래의 일경험과 경우에 따라서는 훈련을 제공하는데, 지역 고용주와의 유기적 협력 속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 또한 상호의무의 원칙이 강조되어, 만일 지원받는 청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은 중단.

※ 핀란드: PES에 등록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단 평가를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PES 등록 2주 이내에 PES 상담사와 함께 개별 고용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획에 대해 PES 상담사와 청년 모두가 책임이 있고, 상호 구속력을 가짐.

※ 스웨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활성화 조치에 참여하여야

※ 폴란드: 니트에 대한 활성화 조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회복지급여(Social benefits)를 제공

※ 아일랜드: 훈련을 받는 경우 더 높은 소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

014

교육시스템 혁신

14. 교육시스템 혁신

01. 청년고용문제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급측면에서는 교육시스템의 질적, 양적 문제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 상황 ☞ 교육시스템의 지속적 개혁 노력 중요

02.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교육시스템을 무사히 마치도록 하는 것에 정책 초점이 두어지고 있음.(독일 등)

03. 직업교육훈련의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대학교육의 질 제고 등과 같은 교육훈련시스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015

진로교육/진로지도의 역할 강화

15. 진로교육/진로지도의 역할 강화

〈우리 (4년제)대학의 현실〉

01. 전공에서 하는 공부나 향후 진로에 대해 잘 모르고 진학한 학생이 43%

02. 학교가 나의 진로문제나 진로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0%
03.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관련 과목(학점이수) 수강 경험 없는 학생이 50%
04. 취업준비교육과 관련한 과목을 수강한 경험 없는 학생이 51%
05. 전공에서 제공하는 진로교과목 수강 경험 없는 학생이 44%
06.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멘토링을 받아본 경험 없는 학생이 52%
07. 진로문제 때문에 경력개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본 경험 없는 학생이 70%
08.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개발웹사이트 이용 경험 없는 학생이 64%

09.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전공교수와 상담한 경험 없는 학생이 74%
10. 전공교수가 나의 진로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학생은 23%

15. 진로교육/진로지도의 역할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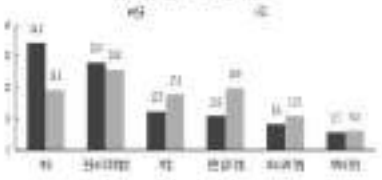
전공교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잘 못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 대학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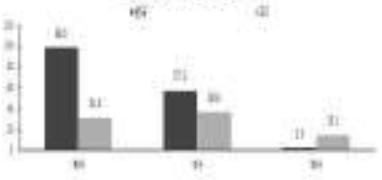
어렵게 지도교수 찾아 진로 상담한 학생에게 지도교수 왈 "대학원이나 가"
그러나 대학원 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

※ 한국 기업은 EU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위를 더 중요시, 학위를 중요시한다는 의미는 학사 학위 보유자에 대한 선호가 석사 혹은 박사 학위 보유자 대비 월등히 높다는 것

서울권별 시 수학별 중요도



서울권별 시 학위 선호도



15. 진로교육/진로지도의 역할 강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01. 진로교육/진로지도에 대한 학생의 참여 확대 방안 고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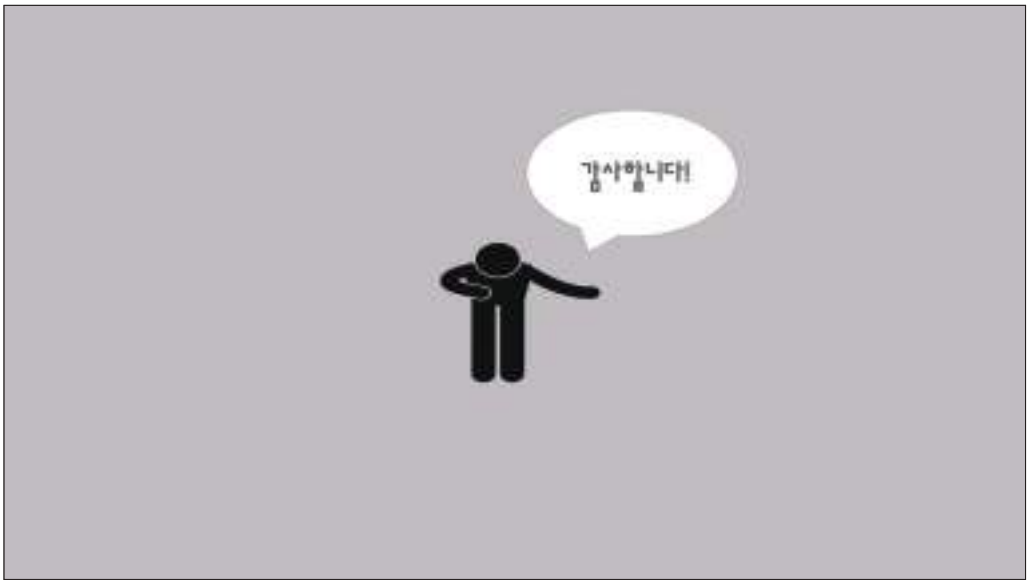
02. 진로교육/진로지도 조직의 학교 내 위상 강화

03. 교원의 진로지도에 대한 책무성 강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

04. 교원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 진로교육/진로지도 전담조직의 적절한 지원(진로지도방법 등)
+ 개별 학생의 이력에 대한 정보 공유

05. 학생의 진로경험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인증 체제 구축

06. 학생의 진로경험 DB화 + 졸업생 추적조사 ☞ 진로경험과 노동시장 이행간 관계 분석 및 유형화, 그 결과의 진로지도 활용



주제발표 2

청년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

김한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전략실장)

청년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

한국고용정보원 **김한준**

2018. 11. 21

목차
Table of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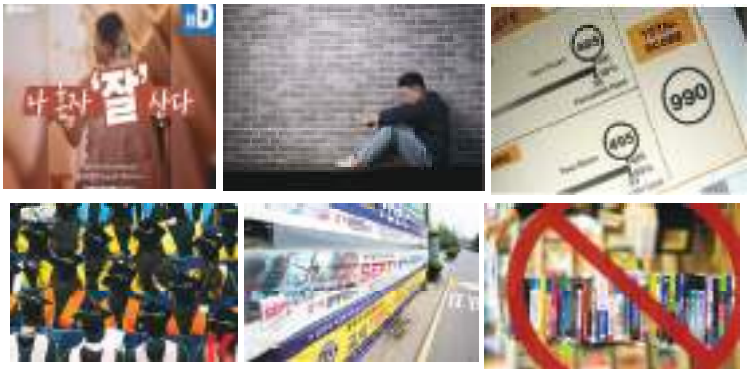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05 결론 및 제언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청년고용의 중요성

- 청년고용 혹은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

※ **졸업유예**, **非婚**, 지속적 실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주거문제, **심리적 우울** 등과 같은 청년의 개인적 문제도 심각(3포, 5포, 7포, 1포)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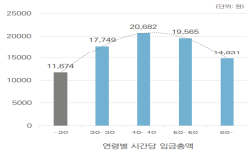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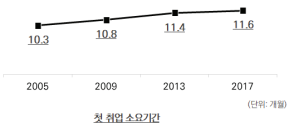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청년*은** 전체 인구 약 5,142만 명(2017년 기준) 중 약 985만 명으로 **19.2%**를 차지(통계청, 2018)
   * 청년층의 연령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15세 ~ 29세로 간주

2. 이들 중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청년(재학 혹은 휴학)이 **약 47%,** 졸업 및 중퇴자가 약 53%

3. **청년층 중 약 반수(52.3%)가 취업준비중**(2015년 오픈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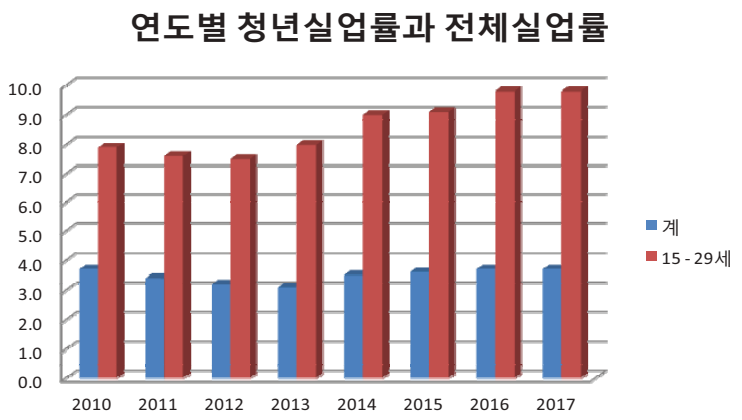
4. 취업을 해도 낮은 임금, 근무여건 등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을 많이 함
   –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150만원 이하의 임금, 첫직장에서 1년 6개월만에 퇴직(2017년 통계청)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높은 청년실업률 : 일반실업률보다 **2.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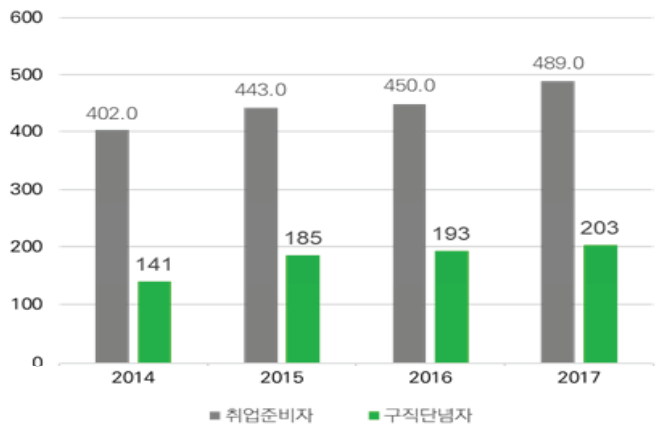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연도

1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노동시장 악화 : 청년층 중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



자료 : 통계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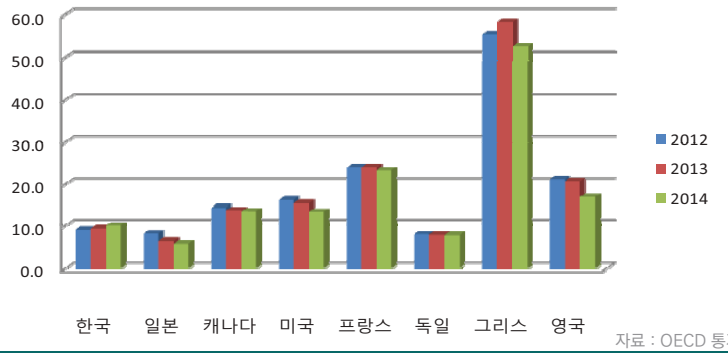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더욱 높은 체감실업률 : 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높지 않으나 우리나라 **체감실업률은 22.7%(통계청, 2017년)**

* 대학교 입학 재수생, 취업준비 재수생, 공무원 시험준비생이 다수인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 청년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이 더 중요(취업준비자, 파트타임 근무자, 구직활동 없는 취업희망자 다수)

※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67.7%**('17년, 한국교육개발원)

주요국의 청년실업률(15~24세)



자료 : OECD 통계(2018)

1

목차
Table of Contents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05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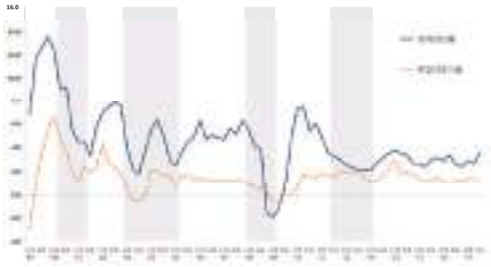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가. 인력수요 부족(수요) : 저성장 기조가 계속,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창출 저하

- 취업유발계수 낮아지고 글로벌 경쟁 심화되면서 신규 인력 수요 부족
- 높은 인건비 때문에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
- **생산공정 자동화**(4차 산업혁명으로 더 가속화 예상)
- 신입직원보다 **경력직 채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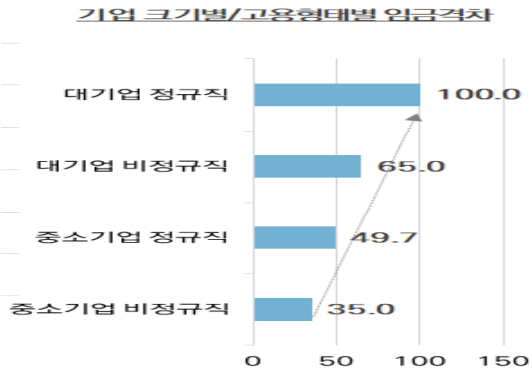
1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수요측면) : 대기업 및 공공기관(공무원) 선호 심화

-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약 2배
-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을 100으로 계산할 때 중소기업의 임금은 절반 수준

* 청년층 취업준비자 **103만 명 중 공무원 시험준비자 39만 명**(직능원, 201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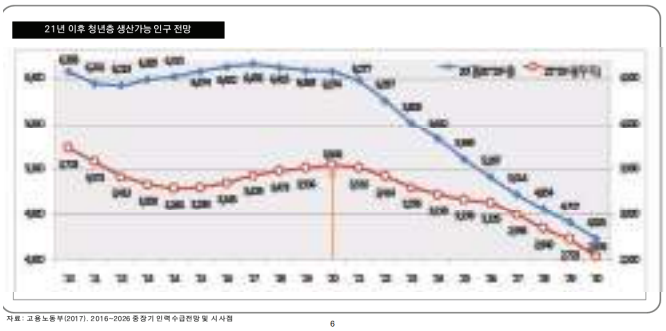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나. 노동공급 측면 : 1991~1996년생 에코붐 세대 증가

- 20대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나 실업률도 같이 증가
- 높은 대학진학률로 **대학 및 대학원 인력은** 노동수요와 달리 **과다 공급**
- **전공계열별**로도 **과다 공급** 발생

(향후 10년간 **사회계열**은 약 22만 명, **교육계열**은 약 12만 명, **인문계열**은 약 10만 명 **과다** 공급
그러나 **공학계열** 21.5만 명 **의약계열**은 0.4만 명 **부족** 예상, 한국고용정보원 2016)

20대 청년층 생산가능 인구 전망(천명)



자료 : 고용노동부(2017).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

6

1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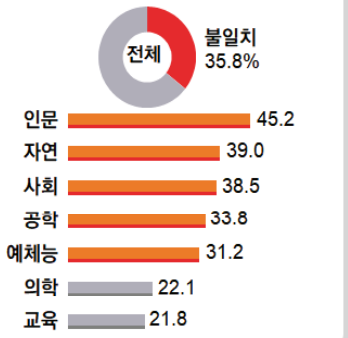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다. 진로지도 및 공공 고용서비스 미흡 : **중등단계의 진로교육 미흡, 대학교육에서의 산업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미흡 등**

진로교육활성화 위해 필요한 것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4년제 대졸자 전공 불일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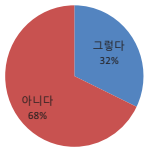
* 한국고용정보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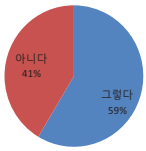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다. 진로지도 및 공공 고용서비스 미흡 :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 및 취업서비스 미흡**(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 의견조사, 2016)하다고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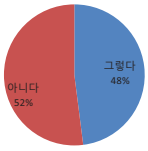
저학년때부터 진로지도 받았다



구체적 목표없이 스펙만 쌓는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준비가 어렵다



정부에서 취업/창업 서비스 지원하고 있다

1

목차
Table of Contents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05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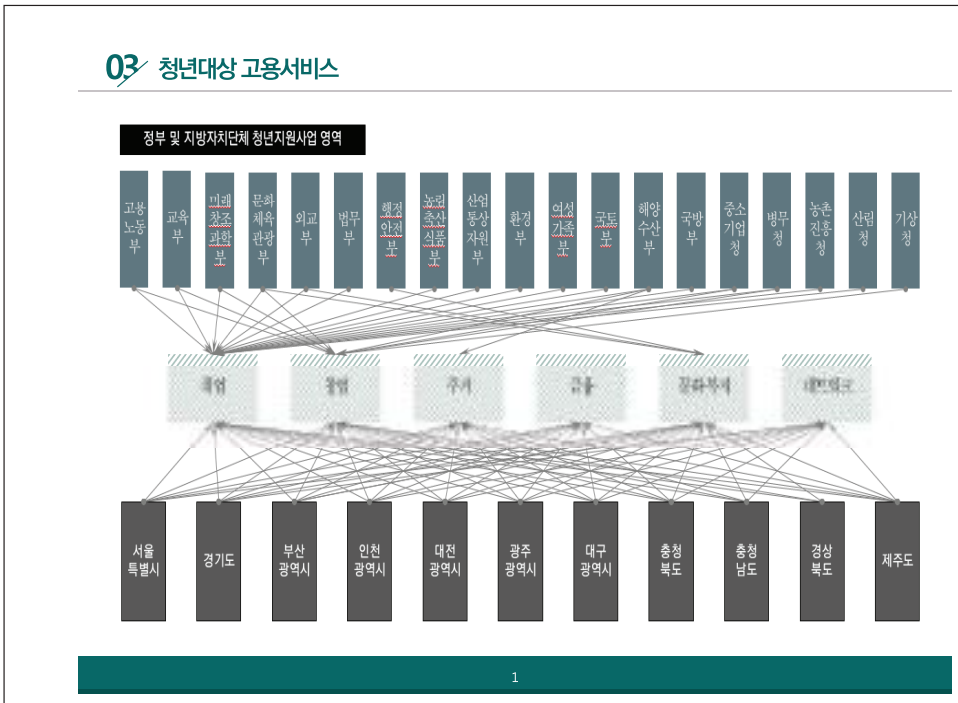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가. 청년 고용대책

- 청년고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기업 경영활동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조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
-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 직업교육, 해외취업/창업지원, 청년층 대상 취업 서비스(청년취업성공패키지)** 및 **진로기관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
-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일자리, 창업뿐만 아니라, 주거/금융/문화 등)을 정부와 지자체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음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청년에게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기회 제공
청년일자리 제공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청년 일자리
주요 정책 과제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사업 영역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중소기업청
병무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나.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2016, 청년위원회)
- 온라인의 대표는 워크넷, 커리어넷 등,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중등학교 진로상담부 등

청년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이용실태 조사(청년위원회, 2016)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다. 고용서비스 콘텐츠

-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 지형구조/업무수행 변화/양극화 심화에 따른 전생애에 걸친 경력개발 및 진로교육 그리고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
- 청소년 및 청년 그리고 성인 구직자의 자기 이해를 돕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와 취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전생애에 걸친 취업 지원 및 진로설계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음

  * 직업심리검사 :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 추천
  * 집단상담프로그램 : 구직의욕 및 스킬 함양
  * 직업정보 : 직업세계 변화, 직업별 상세 정보
  * 전문가 양성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직업심리검사

대학생 및 성인 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보급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성인용 직업적성검사	18세 이상	•다양한 능력요인별 개인 특성 진단(11개 적성요인) •적성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직업선호도검사(S/L형)	18세 이상	•S형: 직업흥미유형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L형: 직업흥미유형 및 성격, 생활사 특성에 따른 적합 직업 추천
대학생 진로준비도검사	대학생	•진로 및 취업선택 지원을 위한 진로발달수준과 취업준비행동수준 측정
구직준비도검사	성인	•구직동기, 기술 등 구직활동과 관련한 특성 측정 •실직자에게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 제공
창업적성검사	성인	•창업희망자의 창업소질 정도 진단 •유리한 창업업종 추천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진로지도 프로그램

청년 및 일반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 및 구체적 구직 스킬을 습득하게 하는 상담프로그램

프로그램명	개발연도(개정)	주요 내용	대상	교육기간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CAP+)	2001 (2007,2013)	-청년층의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자기탐색 및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및 구직기술 향상	청년구직자 (만 15~34세)	4일 24시간
청년취업역량 (청취력) 프로그램	2013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청년구직자 (만 19~34세)	4일 24시간
청년니트 진로역량강화 프로그램 (allA)	2009 (2012)	-취업자신감 제고 및 사회적 기술 향상 -생애비전 설계	취업취약 청년층	4일 24시간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직업정보(정보서, 취업 및 직업 동영상)

청년들에게 직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임금수준, 향후 전망 등과 다양한 취업성공사례를 보여주는 동영상 등

1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진로지도(고용서비스) 담당자 교육

-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을 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 중등학교 교사 및 취업진로지도 담당자, 대학교 교수 및 취업담당자, 고용센터 및 유관기관 취업 담당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자 양성과정, 직업심리검사 활용과정, 대학 및 중등 교직원 교육 등
  - •CAP+ 진행자 양성과정
  -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 진행자 양성과정
  - •대학 교(수)직원 직업진로지도 과정
  - •대학일자리센터 담당자 직업진로지도 과정
  - •직업심리검사 이론과정
  - •대학생 및 성인구직자 직업심리검사 활용과정
  - •직업심리검사 전문가 과정 등

1

목차
Table of Contents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05 결론 및 제언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가. 중등단계 : 입시 위주 교육, 진로 체험 기회 부족 등

- 진로교육법 시행('15. 12),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16. 1학기)등 중등단계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정책적 지원을 확대 중이나
- 진로지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 결정 미흡 및 입시 위주 교육 여전**
-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희망 직업의 직무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중학생 53.7%, 고등학생 54.3%가 희망직업 업무내용 인식 미흡(교육부, 2016)
- 입시위주 교육으로 대학진학률은 높으나, 전공 만족 및 졸업 이후 진로계획 부족
- **체험 중심 진로교육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체험 인프라 부족**
- 진로체험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등 체험처의 인식 부족, 지원 미흡 등으로 체험활동 제한

  ※ 학부모가 인식한 체험정보 필요성(중학교 4.01점, 고등학교 3.96점)(교육부, 2016)
- 기타 : 상담교사 입지, 학교급별 체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등

1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나. 고등교육단계 : 실효성 없는 진로교과, 실습기회 부족 등

- 대다수 대학에서 **진로교과를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진로지도에는 **한계**가 있음
  ※ 진로교과가 진로설계에 도움되는 정도 조사결과(4점척도) 모두 3점 이하
  ※ 4년제 110개교 중 95.5%가 평균 10.5개의 진로교과를 운영 중이나, 대부분 교양선택 교과로 운영되고, 일반적 기초직업능력 중심의 구성(청년위, 2015)

- 대학에서는 대부분 단기 **혹은 일회성 진로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공과 연계하여 경력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부족**
  ※ '진로교육 확대가 필요하다'(89.9%), '진로지도 관련 전공 및 교양교과 개설이 필요하다'(66.4%)로 나타남 (청년위, 2015)

- 정부에서는 대학생과 청년층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외 **현장실습 기회는 미흡하고 인턴십도 수요에 비해 부족**
  ※ 일학습병행제, 4차산업선도인력양성, 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고학년에게 경력개발, 인턴십, 취업캠프 등의 프로그램 도움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기에 학년별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이 필요

1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다. 공공고용서비스 : 낙후된 고용서비스콘텐츠, 전달체계 부족

-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콘텐츠(검사, 프로그램 등)의 최신화 노력 미흡**
  : 청년층을 위한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최신화 노력 필요
  *일부 콘텐츠의 활용도 제고 및 홍보 노력 필요

-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부족**
  - 전국대학에 약 100여개의 일자리 센터, 약 100개의 고용센터 등에서 취업 지원 및 경력설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청년들이 접근에 상당한 제한
  - 졸업 혹은 중퇴한 학교밖 청년들이 일을 얻고 싶거나 다른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공공고용서비스 체계가 미흡
  -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인의 생애주기적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교육/훈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부족
  * 프랑스는 청년들이 반경 5km 이내에 방문할 수 있는 고용센터(폴엠플로이)가 950개 있으며 주거/복지/금융 등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시옹로컬이 약 450개 존재
  * 독일과 영국도 청년들이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에 대한 접근이 용이

1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라. 전 단계 : 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담당자 역량

중등학교단계 :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활용 중에 있으나, 전문성 부족 및 업무 과다 등의 현상

고등교육단계 :

-고등교육단계에서 대학생의 실직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진로교육은 학과의 지도교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과의 교수는 노동시장, 직업, 채용트렌드, 학생의 적성/흥미 파악 등의 능력이 부족함

- 또한 일자리센터 등의 상담전문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공공고용서비스 영역 :

-고용센터에 청년층이 방문하지 않으며 청년층에게 직업세계의 변화, 새로운 훈련과 자격, 채용트렌드, 구직의욕고취 및 구직스킬 조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음

-또한 고용행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상담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도 확보되지 않음

1

목차

Table of Contents

01 최근 청년고용 현황
02 청년고용 악화 원인
03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04 청년대상 고용서비스 문제점
05 결론 및 제언

05 결론 및 제언

가. 미래노동시장 변화 대응

- 4차 산업혁명 등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의 중요성 증가**
- 국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대응하고, 개별 노동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해야 함
- 생애주기에 따른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 체계 마련, 평생학습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 차원의 개입 요구 확대**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개별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생애 경력개발과 관리를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

1

05 결론 및 제언

나. 청년정책의 내실화 필요

-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진로설계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노력을 정교화 할 필요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청년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한 청년정책** 수립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주거, 교통, 공간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 청년층의 **취업활동 사각지대 방지**(청년 수당 등)
  (청년수당을 받으면 한달에 66시간을 알바대신 취업 준위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지원독려**
  (이 회사에 3년 다니면 큰 돈을 만질수 있다니 중소기업에 가보렵니다)
  (가려는 중소기업의 복리후생/근무여건/발전가능성을 알고 싶어요)
- **청년정책 안내 기능 및 단순화 노력**
  (정부 청년정책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수혜자인지도 모르겠고)
  (복잡한 청년정책을 단순화 필요 – 너무 많은 정책은 수혜자에게 혼동)
- **청년지원을 심층상담 강화**
  (내가 진로와 취업과 관련한 고민이 있을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고용센터는 가기 어렵고 대학 졸업 후에 학교로 가서 문의하기도 어렵네요)

* 프랑스와 독일의 PES는 청년층이 장기 실직에 빠지지 않게 청년 개인의 현 상황 진단을 위한 심층 상담 및 직업훈련 및 알선 서비스를 지원
(프랑스에는 청년층을 위한 전문상담사가 약 900명 배치, 독일에는 청년특별센터 설치)

1

05 결론 및 제언

다.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부터 청년실직 완화 노력 필요

- 중등학교 진로지도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올바른 진로선택을 촉진하며, **청년기 이후 취업 및 경력개발을 위한 초기 투자**
- **뚜렷한 진로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노동시장 성과가 더 긍정적**이라는 다수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조기에 진로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성적 중심의 진학 혹은 목적 없는 스펙 중심의 취업준비보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기반한 진로선택을 촉진하여 **무조건적인 대학진학 현상을 완화** 하고 직무와 무관한 교육 지양
- **고졸 청년층 혹은 학교밖 청년층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

1

05 결론 및 제언

중등단계에서부터 청년실직 완화 노력 필요

- **중등단계에서부터 청년실직을 완화하기 위한 고용서비스적 접근**
- **청소년 진로체험 및 일 경험 지원 확대**
  - 대폭 확대되는 직업탐색 및 체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체험 일터 및 참여업체 발굴
- **진로 및 직업분야 중등교원 연수 강화**
  - 중등교사(진로전담교사) 대상 진로지도 심화 연수(한고원이 강점을 지닌 직업정보 및 신직업정보 활용, 직업전망 및 미래직업변화, 진로지도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활용, 고용현황 및 고용트렌드 변화 등)
- **직업 및 고용 관련 자료 활용성 강화**
  - 한고원에서 개발된 직업심리검사, 진로탐색 자료, 직업정보서, 직업동영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 강화
- **온라인 학생 개인관리 콘텐츠 지원**
  - 워크넷과 나이스(NEIS) 연동을 통해 중학교 단계부터 자신의 진로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 일본 Job Card(개인의 진로·경력 관련 사항 기록, 졸업시 구직자료 등으로 활용), 미국 개인별 학습계획 (IGPs, Individual Graduation Plans)(중학교 단계에서 자신의 진로 및 준비 관련 사항 계획서 작성)

    * 학생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라 직업심리검사, 관련 정보 검색 기록, 주요 관심분야 기록 등을 학생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학교에서는 NEIS와 연계하여 수행여부 관리

1

05 결론 및 제언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실직 완화 노력

- 형식적인 진로교과목 운영보다는 전공과 연계된 직업교육 및 직업 안내

- 대학 사범계열 진출 가능 직업, 필요 역량, 훈련/자격 등)

- 노동시장 정보의 적극적 제공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노력**

- 직업별 산업별 인력수요, 희망임금과 실제임금의 차이, 최신 부상하는 산업과 사양 산업(직종)

- 혁신적 창업/창직의 경험 제공

-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소유한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업이나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1

05 결론 및 제언

라. 공공고용서비스의 확대

-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 고용센터,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의 접근가능성 제고를 위한 양적 확대
- 취업 및 심층상담 기능 확보
- '취업에 대해 고민이 있는 청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혹은 대학일자리센터와 같은 공공영역의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
-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훈련 확대 – 빅데이터/사물인터넷/프로그래밍 등

- 공공고용서비스 성과관리

- 청년층 대상 민간위탁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 훈련기관에 대한 인증 및 프로그램 질 관리

- 공공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

- 공공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종사자 역량 강화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프로그램, 심층상담기법, 내담자 사례관리법,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 구인개척방법 등)

1

The End
Thank You
한국고용정보원

주제토론 1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문승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교수)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문 승 태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농업교육과)

청년고용, 우리사회의 화두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혁신 의제를 던져준 것만으로도 본 발제는 의의를 갖고 있다. 발제자가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상자의 명확한 정의를 통한 새로운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정부는 37조원 정도의 예산을 일자리 정책에 배정하고 있으나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 합동 발표(2018년 3월 4일자)에 의하면 ‘17년 청년 실업률은 9.8%, 고용률은 42.2%이고, 비경활 비율이 77.3%로 증가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시장 여건 악화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은 수요적 측면에서 저성장과 노동시장 수요축소의 이중 구조문제로, 저 성장기조 속에는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의 증가로 취업유발계수는 낮아지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해외투자는 확대되는 반면, 국내투자는 축소되고, 청년고용의 신규인력 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입/경력직 채용 추이(%): (‘09) 82.7 / 17.3 → (’17) 69.1 / 30.9(경총). 또한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금격차: 대기업 정규직 100(대기업 비정규직) 65.0, (중소기업 정규직) 49.7(중소기업 비정규직) 35.0). 공급적 측면에서도 인구변화요인과 고학력

자 증가 요인으로, 20대 후반인구 일시적 증가(~21년)와 대학진학률 최고시점(´08~´10)에 입학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시기가 겹쳐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사회의 위험요인이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 10명 중 4명 정도는 공시·공시적이며, 4명중 1명은 옥탑방에 거주하는 등 청년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30청년세대들은 약 절반가량이 연애, 결혼 등 소위 7포세대가 되었다. 청년의 문제는 한국의 미래사회에 부메랑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다.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을 축적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소견

청년고용대책은 사회구조적 원인이 문제이므로 경제구조개혁 차원적 접근뿐만 아니라 심층적이고 다양한 각도로 문제를 재인식 할 필요가 이다.

우선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과 성과에 기반을 둔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으로 증거에 기반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고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EU에서는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인증제(Youth-Yell)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니트 대상자에게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청년보장제는 1984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로그램은 교육·훈련, 학교중퇴 예방 및 치료교육, 취업알선, 직접고용창출, 고용 인센티브, 스타트업 인센티브 등 주로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최석현 외, 2018).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EU의 청년고용보장제를 고려하여 니트(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EU는 6대 실행 중심축에 기반을 두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① 조기개입 및 활성화 ② 신속한 이행 ③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파트너십) ④ 노동시장 소외 및 취약계층 청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노동시장 통합) ⑤ 유럽 기금의 적극적 활용 ⑥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또한 OECD 주요국은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사이의 역량 미스매치를 줄여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본은 시간제(part-time), 전일(full-time) 근로 간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은행, 2018).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은 실직자 지원 등에 국한하는 중장년 고용에서 선퇴직 후대책의 정책으로 아직도 청년실업률은 상승되고, 고용률이 악화되고 있다. 그 이유로 청년들이 공공기관 및 공무원 준비에만 매달리고 있어 노동수요의 약 극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창년 실업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정부의 구조적 시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기업과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① 노동정책은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노동조합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양한 모임과 정책 토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구직 장애물을 신속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맞는 종합적인 지역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고,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층의 고용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제공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②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내 이동성(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제한적이기에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할 시기의 청년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할 때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에게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된 청년 기술창업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대학 창업동아리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기개입, 니트를 찾아가는 노력, DB 구축 및 정보공유, 상호의무의 원칙에 기반한 적정 지원 제공

① 청년들이 학교 재학 시 부터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유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턴 십, 현장실습제도 등과 같은 선제적 제도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청년이 말하는 청년일자리의 문제는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환경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일자리의 데이터 베이스화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자와 일자리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의 상호 의무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②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구직자와 관련 기업체와의 일자리 매칭, 지역인재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자리 확대 및 취업률 제고 노력으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인 도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③ 개인맞춤형 제도 설계 및 청년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즉 청년들이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취업동기와 직업의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장으로서 청년모임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동기를 부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교육시스템 혁신,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역할 강화

① 한국 대학들은 대학진학률, 이공계 학사 비율,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 등에서 성과를 높이고 있으나, 대학교육이 시장경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에서는 35개 OECD국가 중에서 32위로 최하위 수준(한국 4.4점, OECD 평균 6점, 문성욱・안준모・이미순, 2016)에 머물고 있다. 지식과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학교와 산업 현장의 '기술 격차(skill gap)'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견습생 프로그램(듀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유럽연합(EU)의 청년 실업률 평균 17.3%, 그리스 44.7%, 스페인 44.4%과는 현격한 차이를 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 독일은 6.7%(동아일보, 2017. 5. 8)이기 때문이다.

②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고교학점제 도입, 평가제도 개편, 대입제도 개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편할 제2의 교육개혁 선언이 필요하다. 데보라 로즈베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직업훈련 국장은 "교육은 인간이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변화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초래한다"며 "기술 미스매치를 해소키 위해선 정부와 기업, 노조, 개인 등의 실질적 추진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생애설계를 하고, 진로와 직업에 맞춘 평생진로교육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청년들은 공무원, 교사, 공기업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법적 사고의 개념에서 벗어나 직업(job)보다는 직무(task)라는 개념의 정립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학제 간 교육의 연결 및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초중등 교육은 자신의 가치관 정립,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사고를 통한 창의력 신장에, 전문대학 및 대학 교육은 직업적응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해야 한다. 이제 경직화되고 획일화된 전문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디지털 융·복합시대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의 방향, 혁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21세기 미래 환경은 빛의 속도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격변하는 극도로 역동적이고 불안전한 사회이다.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직업의 미래' 보고서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기계화로 인해 2015～2020년에 사무·행정 직군에서 화이트칼라 일자리 약 475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데이비드서와 이선, 2017).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새로 생성되는 일자리에 비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2016년에 국내 30대 그룹에서만 1만 4000명이 해고를 당했다. 600만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새로 생성되는 일자리에 비해서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 등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사즉생(必死 卽生) 필생즉사(必生卽必)"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충무공의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도 죽기 살기로 모든 관계자들이 협력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2010에서 2014년 사이에 만들어진 65만여 개 미국 일자리 대부분은 일본, 영국, 독일, 한국과 같은 외국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새롭게 만들어진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2가 외국인 투자 덕이다(윤석천, 2015).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청년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향후 청년인구의 감소로 총량적으로는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요인들의 해결 없이는 문제가 그대로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및 유후인력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동원이 가능하므로 인력부족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인구가 감소해도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위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 측면의 복합적 영향요인을 직시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모두 함께 해야 한다.

첫째, 진로교육에서 해답을 찾자. 진로교육은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해결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중요하고 복잡한 의사소통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고 협업하는 '사회적 역량 함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문제에 대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고용문제는 민간의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최근 급격한 발달을 보이는 IT와 AI 등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의 발달로 생성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및 취업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교육수강 기회 확대, 구직자와 관련 업계와의 일자리 매칭, 지역인재 육성, 우수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등 다양한 일자리 확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유럽의 청년보장제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와 취업스펙 쌓기 중심의 학업은 창의적 인적자본 형성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연령대 간 고용률과 임금격차 확대는 세대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청년층의 고용부진과 불충분한 임금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노후근로를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에게 적극적인 고용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취・창업 관련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취・창업 및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법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두어 그들의 발전을 법제도가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즉 청년들이 신나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BTS가 유엔연설을 통해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듯이 필자는 우리나라 청년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제토론 2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장)

‘청년고용대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주 휘 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

□ NEET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재정비와 창의적 진로개발의 중요성

NEET는 교육 혹은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간략하게 분류, 정의하지만 사회・심리・경제적 의미에서는 ‘낙오자’, ‘실패’자라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청소년이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일 또는 향후 일하게 될 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녹아 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은 아마도 매우 억울하다고 반응할지 모르겠다.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4지 선다형 시험 문제에서 정답 고르기를 강요당했고, 주관식 시험 문제 조차 출제자가 의도한 ‘정답’이 있었기에 스스로 생각할 기회는 많이 갖지 못했다. 그리고 이른 바 학교 문을 나서 다시 교육·훈련 아니면 취업이라는 2지 선다형 인생 정답지가 이미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문을 선뜻 박차고 나갈 수도 없다. 그래서 휴학생, 졸업유예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공시족 25만이 실업률 통계를 흔들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니, 낙타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나가야 한다고 압박한다. 성년이 되면 될수록 점차 사회가 요구하는 선택지는 좁아지고, 혹여나 그 바늘구멍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정부가 내리는 정책 처방은 단순하다, 여기 발표가자가 제안하신 것처럼 ‘취업패키지’이다. 결국엔 교육훈련으로 또는 일자리 찾기가 주요 해결안인 셈이다. 다람쥐를 쳇바퀴에 올려놓고 오로지 한 길 정책만 논의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 NEET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아마도 취업과 교육훈련 참여 요구에 지쳐 “나 좀 쉬면 안 돼?” 또는 “나 딴 거 하면 안돼?”라고 반문할 것이다. 학교가 재미없고, 재미있는 일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그마저 재미없는 일자리라도 쉽게 찾지 못한 이들에게 NEET라는 카테고리에

가두는 일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기의 진로교육을 통한 창의적 자기주도 진로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긍정적 몰입 경험을 통해 자기실현의 기회를 많이 얻어야 한다. 호이징어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사유나 노동이 아닌 놀이라고 정의하며 '호모 루덴스'를 주창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로봇 등, 과학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따라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은 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아 재미있게 도전하고 이 과정에서 삶의 가치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길에서 서서 도전할 수 있는, 자기 길을 찾는 진로교육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청년지원 정책의 전달 체계와 한국형 체제에 대한 고민

앞서 언급한 내용이 청년 정책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 다음에서는 정책 전달 체계의 사용자 친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노동시장 이행을 준비하는 데 학교훈련기관이 주 역할을 담당하고, 외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관에서는 이행에 필요한 보조적 역할을 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취업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복지 정책도 마련했다. 청년 취업난 속에서 주 역할 담당자 중 하나인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률'로 성과를 평가했고 대학 밖에서는 청년 대상 정책 전달 체계 재구축을 위해 워크넷, 커리어넷 그리고 면대면 지원이 가능한 대학일자리센터를 현재까지 100여개 세웠다. 전문대학 포함 대학 3곳 중 1곳은 대학일자리 센터가 있는 셈이니, 지원센터가 물리적으로 참으로 가까워졌다. 또, 각종 청년층에 대한 정책과 상담서비스가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진화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듯, 학교와 학교 밖 서비스 기간이 물리적으로 공간을 좁히면서 정책 통합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주 역할자와 보조 역할자 간의 간극을 좁혀 정책 전달 체계가 재정비되어 가고 있다.

발표자께서는 다양한 해외 사례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는 '청년센터'를 제안하고 있다. 통합적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는 바이나, 외부에 위치할 신규 센터가 지닐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적 환경에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교육정책 차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많은 학자들이 경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리서치와 프랙티스 간의 간극을 이해하고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의 참여가 저조하고 반면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서구 유럽의 대학생과 달리 아시아계 학생들의 도움구함(seeking help) 패턴과 정도가 다르다는 메타 연구 등의 결과도 한 번 상기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밖 청년을 위

한 서비스센터의 필요성을 인지하나, 중복적 투자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통합, 강화해 나가고 한국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자들이 더욱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발표자가 제시한 청년센터(Youth Center)와 상호의무적 법안은 매우 흥미롭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이미 1990년대 덴마크에서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이다. 이미 직능원 진로교육센터의 각종 연구 성과물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진학과 관련하여서는 전국 7개 Regional Center에서 지원하고, 진로체험, 일자리,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망라한 상담 중심의 지원은 Youth Center에서 맡아 한다. 또, 일찍이 상호의무 조항을 법적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에서는 장기 NEET 상태의 청소년은 Youth Center를 찾아 상담의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종 혜택을 정부가 끊을 수 있다. 사회보장체제가 촘촘하게 갖추어진 덴마크 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가족주의 기반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이러한 상호의무 조항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사회맥락을 고려하여 청년 친화적 서비스 나아가 청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한국형 지원 모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대학, 학교, 청소년 기관 소속) 교원(지도자, 관리자 등)의 진로, 취창업 지도의 역량 제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와 학교 밖 진로취창업 서비스의 융합이 트렌드이다. 사회적 미스매치를 줄이고 재학 기간 중에 노동시장 이행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밖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며, 학교가 갖지 못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하다. 초중등 단계에서는 진로교사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대학 단계에서는 취업지원관 등이 있지만, 양적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 고등교육 단계로 높아질수록 각 학문 분야의 사회적 진출이 다양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해당 분야의 가장 전문성을 가진 교원의 진로지도 역할이 중요하다. 연구 능력으로 채용되고, 교육 능력을 스스로 길러 우수한 교수가 되지만, 학생의 취창업 상담의 의무는 주어지나,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초중등에서는 진로상담 연수가 진행되나 대학 자체에서 하는 FD(faculty development)나 신규 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한 대교협 연수에서도 거의 대부분 빠져있다. 좋은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학생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지도를 위해서는 교원의 진로지도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직능원 진로센터에서 2019년에 추진될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 교원의 진로지도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토론 3

‘청년실직의 예방적 접근 진로교육: 초중등단계를 넘어 고등단계와 공공고용서비스로 확대’에 대한 토론문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청년실직의 예방적 접근 진로교육: 초중등단계를 넘어 고등단계와 공공고용서비스로 확대’에 대한 토론문

박 주 형

(경인교육대학교)

■ 발표의 주요 내용

○ 발표자께서는 청년고용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여러 청년고용 악화 원인을 제시하였음. 이 중 진로지도 및 공공고용서비스 미흡(중등단계의 진로교육 미흡, 대학교육에서의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미흡 등)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음. 다음으로 대표적인 청년대상 고용서비스의 정책의 내용과 시행구조 및 세부적인 프로그램(콘텐츠)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

○ 현행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중등단계(입시 위주 교육, 진로 체험 기회 부족 등), 고등교육단계(실효성 없는 진로교과, 실습기회 부족 등), 공공고용서비스(낙후된 고용서비스 콘텐츠, 전달체계 부족), 전 단계(진로교육 및 고용서비스 담당자 역량)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청년실직의 예방적 접근을 위한 진로교육을 위해 필요한 제언들을 제시함. 예컨대, 전생애에 걸친 경력개발이나 청년정책의 내실화, 중등 고등단계의 학교의 청년실직 완화를 위한 노력들을 제시함.

○ 전반적으로 발표자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감하고 있음. 발표의 내용과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라 발표 내용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힘들 것 같음. 다만, 토론자의 역할을 위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함.

■ 발표문을 보고 느끼는 생각

○ 발표문의 제목과 관련하여

- 발표문은 청년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음. 학술대회 브로셔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실직의 예방적 접근 진로교육: 초중등단계를 넘어 고등단계와 공공고용서비스로 확대”라는 제목으로 표시됨.
- 제목을 보고 한 기대는 일반적인 용어인 청년고용 문제가 아닌 청년실직이라는 표현을 썼기에 청년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진로교육 방안을 있는가라고 생각하였음.
- 그러나 청년실직은 청년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표문에서 논의한 내용들인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곧 청년실직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된 것임을 깨달았음. 다만,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는 청년실직을 예방하는 것과 청년고용을 촉진한다는 것과 의미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음.

○ 관련된 선행연구의 탐색

- 임완섭(2017)의 ‘청년 재취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요인 분석’이나 홍성표, 정진철(2015)의 연구[1)]와 같이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따로 분석하고 이러한 것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청년실직 기간을 짧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음.
- 두 번째로 청년실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보고 그럼 청년실업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의 최초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음 예컨대, 가구소득, 아르바이트 경험, 사교육 경험, 자격증, 직업훈련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한 이현성(2010)의 첫 직장 채용에 대한 연구, 혹은 직장체험프로그램의 참여 경험과 주된 구직 경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경우 분석 대상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김현경, 노대명 등(2016)의 연구의 결과들도 청년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일 것 같음.
- 다만, 발표자께서는 제한된 발표문 분량으로 인해 이러한 논의를 포함시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됨.

○ 제언부분과 관련하여

- 중등학교에서의 청년실직 완화 노력 필요

: 청년실직 완화는 다른 의미에서 취업을 빨리하고 취업한 기관에서 오래도록 직장생활을 할 때 가능한 것이라 생각함.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일부 지역에서는 자유학년제 수준으로 발전시킴)의 경우 진로교육이 정규교과에

1) 청년층과 재취업 결정 요인이 유사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재취업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임.

보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런 정책이 향후 중등학교에서의 청년실직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음.

- 진로선택 과목의 효과

: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기 진로·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하고 진학・진로를 준비하도록 지원함. 다만, 제목과는 달리 진로선택 과목이 기준의 과목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 같음.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진로선택 영역의 발전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음. 학생들이 진로선택 과목 선택 시 자기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거쳐야 하기 때문임.

- 대학입시 단계에서의 노력

: 토론자가 근무하는 경인교대는 특성화된 대학으로 초등교사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대학임. 일반적으로 대학입학은 수시와 정시로 구분되는데 수시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보다 뚜렷한 목표의식과 직업에 대한 정보 및 역량을 갖추고 대학에 입학하며, 대학 생활과정에서도 학업이나 생활 그리고 미래직업에 대한 준비과정이 매끄러운 것 같이 느껴짐. 이는 곧 대학입시정책 역시 청년실직과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음.

- 대학단계어서의 노력

: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진로교육이 초중등단계를 넘어서 고등단계와 서비스 단계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함. 경인교대의 경우에도 입학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혼란으로 학업중단을 하거나 휴학 등의 제도를 통해 진로탐색을 다시 하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학생들에게 초등교사라는 직업 속에 성장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기에 선배 교사들의 다양한 성장경로(교육전문직이나 학업을 지속하는 방안 등)를 보여주면 다시 흥미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본 바 있음. 또한 일종의 공공서비스인 교생실습과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제공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초등교사라는 직업에 보다 빨리 입문하고 그 속에서 본인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음.

참고문헌

김현경, 노대명 등 (2016). 근로빈곤층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복지정책 수요

이현성 (2010). 가계 소득이 젊은이의 실업기간에 미치는 영향. **경제연구,** 31(2), pp.47-84.

임완섭 (2017). 청년 재취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요인 분석.

홍성표, 정진철 (2015). 자격취득이 장애인 재취업 및 구직기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015. 25**(3), pp.169-196.

주제토론 4

‘청년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에 대한 토론문

정현주 (곡정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청년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 토론문

정 현 주

(곡정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발표자는 청년고용의 전반적인 현황과 고용악화의 원인과 함께 실직 예방을 위한 다양한 고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더 개선되어야 할 중등, 고등 단계 사회적 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저는 청년 실직 예방을 위한 중등단계 진로교육이 섬세한 사회적 시스템의 지원, 교육 구성원의 직업적 역할 책임이 선행될 때 가능하여 다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 중등단계 진로교육과 청년 실직

발표와 토론 주제를 만나면서 중등단계 교육에서 고용과 실직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질문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취업을 어떻게 준비할지, 치열한 취업 경쟁과 스펙, 좋은 직장의 기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 등 매스컴과 가족을 통해 접한 정보를 언급하며 발표자가 제시한 청년고용 현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의 실업률과 같은 수치에서 중등단계의 취업과 실직은 숨겨져 있어 교육 구성원들은 무엇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해마다 만나는 학생들에게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현실적 정보를 중등단계의 학업 중단자와 졸업 후 상황 통계를 제시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잠자는 학생들을 깨우기 위함이지만 그 마음에 역동이 생겨나길 바랐습니다.

학생 학업중단의 규모가 2016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0.1%로 2,700~2,900명 정도이고,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0.33%로 약 4800명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는

학교생활 부적응, 조기 진학, 종교, 질병과 가정환경 등의 사유로 학교를 자퇴하거나 징계 등에 의한 학적 박탈로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는데 2016년 기준 전체 학생의 1.08%인 1만 9천여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졸업 후 상황을 살피면 여러 가지 이유를 안고 있지만, 무직자의 비중이 졸업자의 20%(117,414명)가 넘습니다. 학업중단 학생들과 졸업 후 무직자가 자기계획에 따른 상급학교의 진학준비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싫지만, 예비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직 예방을 위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예비 실직자를 이렇게 양산하면서도 체감하지 못하는 중등단계의 학교 교육의 책임을 느끼게 합니다. 학교별 공개된 통계와 연간 학교 교육 평가에서 항상 좋은 부분만 바라보고 입시의 성과를 자축하는 것에서 사람을 다루는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지원이 부족했는지를 평가하여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해 가는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학교 교육현장이길 바랍니다.

연도	학제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	입대자	미상 2)주석	취업률	진학률
2008	일반계고	423,513	372,102	3,434	44,417	250	3,310	6.7	87.9
2008	전문계고	158,408	115,407	30,036	9,804	925	2,236	71.4	72.9
2008	소계	581,921	487,509	33,470	54,221	1,175	5,546	35.9	83.8
2011	일반계고	495,644	372,561	5,359	79,967	623	36,995	4.4	75.2
2011	전문계고	152,824	97,400	35,698	11,420	1,317	6,958	66.0	63.7
2011	소계	648,468	469,961	41,057	91,387	1,940	43,953	23.3	72.5
2014	일반고	453,046	356,725	8,958	64,429	614	22,117	9.4	78.7
2014	특목고	23,842	14,212	4,277	4,344	114	884	44.9	59.6
2014	특성화고	106,521	40,353	47,539	14,333	450	3,680	72.3	37.9
2014	자율고	49,574	37,527	494	7,163	25	4,347	4.1	75.7
2014	소계	632,983	448,817	61,268	90,269	1,203	31,028	33.5	70.9
2017	일반고	419,461	324,234	8,942	85,519	414	0	9.4	77.3
2017	특목고	23,272	13,239	5,461	4,501	46	0	54.7	56.9
2017	특성화고	96,022	31,466	48,001	15,973	429	0	74.9	32.8
2017	자율고	44,853	32,984	380	11,421	38	0	3.2	73.5
2017	소계	583,608	401,923	62,784	117,414	927	0	34.7	68.9

단위: null
산출식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X 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X 100
주석
1) 전공과 진학 - 2011년부터 진학자 제외
2) 미상 - 2015년부터 무직및미상으로 통합
* 취업률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X 100
* 진학률 = 진학자/졸업자 X 100

<출처> 연도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 교육통계

2. 청년 실직 예방을 위한 중등단계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시스템

가. 지역의 직업 경험 확대와 성찰 나눔과 실천

우리의 교육은 2~3차 산업사회의 인재 양성에 맞추어진 형태로 표준화, 규격화, 정형화의 특징(안종배, 2017)을 유지하면서 융합적 기술과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4차산업 혁

명'을 맞이하였습니다. 초등과 중등의 진로교육 내용 중 '직업탐색'에 있어 현존하는 직업 중 일부는 미래에는 사라지거나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발맞춰 변화되어야 할 분야로 안내하면서 4차산업을 대표할 만한 직업을 소개합니다. "AI가 발전되면 내가 일할 분야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는 짧은 대화에서 현재의 직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답답하다고 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진로설계를 적극적으로 해온 학생의 경우 직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 진지한 대화만으로도 전략 수정과 현재에 몰입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으나 일회성의 직접경험이 다른 간접경험을 현실적으로 유추하여 이해하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워크넷, 커리어넷의 직무설명과 동영상 자료가 매우 훌륭하여 좋은 컨텐츠로 사용하는데 직업 이해의 깊이는 실제 경험과 성찰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단계 학생들에게 현장직업을 체험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 지원을 요청합니다. 일정 시기뿐 아니라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단계적 경험을 제공하여 삶의 배움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진로교육은 이런 경험을 성찰하고 대화를 통해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감각을 깨우고, 의사소통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 직업 생활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설계에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예산뿐 아니라 지역의 기반산업을 다양한 유형의 교육자료와 체험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친숙하게 지역의 직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학생의 진로설계 안에 지역의 사회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여질 때 지속가능한 진로교육과 사회유지가 가능하리가 생각됩니다.

나. 계열 내 혼재된 진로: 다양한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확장, 진로 선택에 책임지는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중학교에서 취업과 진학이라는 선택을 통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일반고는 대학 수능 준비로 수업 외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학생, 진학을 준비하는 데 학교에서의 비교과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학생, 자신은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으니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겁주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을 만납니다. 특성화고 학생 중에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일반고처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특별전형으로 대학진학 등의 이유로 입학하는데 진로전담교사의 현장 배치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입학 시에 구체적 진로를 확정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진로미결정 학생들의 진학으로 대학에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다양한 편입과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중등단계에서도 일반고에 직업위탁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 직업학교와 학원 등에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을 두고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와 일반고의 전학이 허용되고 계열변경과 학과 변경도 절차를 두고 허용하며 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은 대안위탁과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로변경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하여 의사결정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제공되는 교육은 과정 선택과 과정 포기가 모두 쉽고, 기존 경로로 조건 없이 다시 편입되어 학습 부진과 미흡한 성취를 허용하게 됩니다. 교육 도중 학생이 포기하거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해도 다음 학년으로 승급이 가능한 만성화된 교육문화가 학생의 내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합리화 할 수 있는 틈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수혜자에 대한 배려, 민원을 고려하더라도 투입된 국민세금을 무용하게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배양하는 부분은 세심하게 재설계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생에게 기회는 다양하게 주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교육문화가 정착되어 교육기관의 인증이 학생의 역량을 보증할 수 있는 신뢰롭고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대상 맞춤 진로지원 공공 서비스 제공: 직업교육 공공서비스의 대상 다양화, 현실화

중등단계 교육과정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와 직업위탁과정은 취업을 준비하는 직업교육이 제공됩니다. 특성화고는 교육부 및 각 계 부처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사, 외부 전문 강사, 현장 전문가, 취업지원관 등의 상담과 지도로 기초직업능력과 기능을 익히고 취업에 요구되는 정보수집과 상담, 교육 등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고 직업위탁과정은 직업교육 선택 전후 학교와 사회의 교육 지원이 약하고 위탁 교육 참여 중에는 학교와 교사로부터 소외되어 전적으로 위탁기관의 진로지도에 의존하게 됩니다. 직업위탁기관에 따라 진로정보와 지도의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격차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약한 자기 관리 능력과 진로확신 정도를 살필 때 직업교육 선택의 확신과 전공과정을 미리 소개할 직업진로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동기부여, 평생교육, 채용트렌드, 노동시장을 이해할 정보를 위탁과정 전공선택 전에 제공하고, 위탁과정 중에는 개인 맞춤 구직상담과 구직스킬을 제공하여 일반고 교사들이 줄 수 없는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수원 지역의 직업위탁학생을 위한 직업진로캠프는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기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 매우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미지메이킹,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프로그램 등 기본 기초소양교육,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다루는 내용 등)을 기말고사 이후 또는 수능 이후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면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전 청소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처를 미리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때 졸업 후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이 지속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이해 교육, 지역사회 이해 교육, 학생 역량배양의 중요성, 고용트렌드를 이해

하여 교육과정재구성에 활용하고 교사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사연수를 하는 것은 자신이 교육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생동감 있는 역량 중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단위 교사들이 동참하기는 어려운 만큼 온라인 자료공유와 직무연수(혹은 동영상 제공), 찾아가는 학교단위 교사연수와 같은 접근성과 실천적 공감을 높이는 방안을 활용하면 교사들의 동참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진로전담교사의 연수는 관련 정보와 구체적 진로설계 사례를 공유하되 서로 다른 근무환경과 경력 배경을 고려하고 전문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학생들과 가장 근접한 학부모와 교사의 신념에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이미지가 자리하고, 평균 수명이 11년, 창업 후 30년 넘는 기업이 2%, 100년 역사를 가진 장수기업은 7개라는 통계는 직업적 안정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선택을 기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이해 컨텐츠를 다양화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알리고 학부모와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됩니다.

3. 중등단계 진로교육에의 반영: 진로전담교사의 실천 환경

중등단계 진로교육은 앎을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내는 개별 코칭이 중요합니다. 기업현장도 다양하고 개인의 진로성숙도도 다양하여 기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으려면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활동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진로코치의 피드백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생애진로설계를 구상해보고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개인별 프로젝트 수업을 매년 진행하면서 학생의 현재를 점검하고 문제접근방법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주도적이든 수동적이든 하는 학생과 하지 않고 버티는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매년 과정마다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완성된 진로발표를 보며 큰 성장에 서로 웃으며 마무리하지만 해마다 스스로 실망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창의적체험 진로활동, 학급별 주 1회 50분, 사례를 들 수 없을 무례한 학생을 지도하고 "하지 않으려는 학생을 하게 할 것인가?" 의 갈등이 저의 내면에 쌓입니다. 학생들의 신념 안의 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그림자를 깰 일관성 있는 망치가 필요합니다. 망치를 든 사람을 보호할 안전장치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근성이 있는 인재를 키워내려면 포기하지 않는 책임있는 교육이 먼저 실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문헌

권희경 (2017).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현황, 한국교육개발원<교육정책포럼>.

안종배 (2017). 4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 7(1), 21-34.

이덕현・김수지・염동식・양 윤・장원섭 (2014). **다양한 경력구성 사례를 통한 새로운 일의 교육적 의미 탐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례 발표 1

온라인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동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구축TF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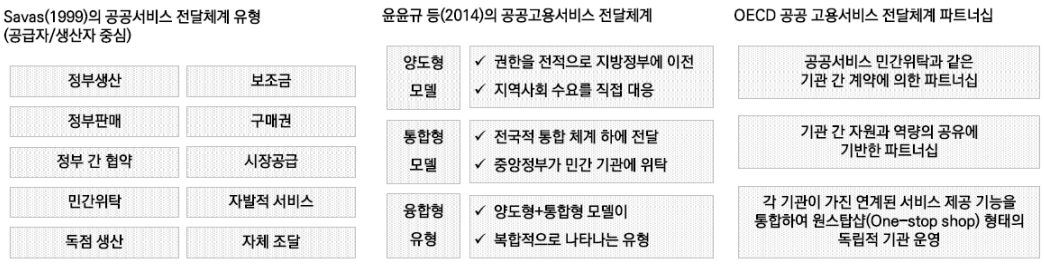
온라인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 동 열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청년센터구축TF팀장)

1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일반적 개념

○ 일반적으로 전달체계라 함은 서비스 혹은 급여를 효율적으로 정책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직을 통하여 실천할 것인가의 전략임. 즉, 정책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공급자와 수례자간의 조직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음.

○ 공공 고용서비스의 전달은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의 비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가 다양하게 구성됨(Gilbert and Specht, 1986)



〔그림 1〕 공공(고용)서비스 개념 및 주요 유형 구분

○ 발제자료에서는 청년층이 청년고용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처를 통칭하는 의미로 활용하였음.

2 청년(고용)정책 현황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은 약 7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됨.

○ 중앙정부 청년정책은 총 140여개가 있었으며, 취업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중앙정부 청년정책 현황

대분류	취업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합계
중분류	①	②	③	④	소계	⑤	⑥	⑦	소계	⑧	⑨	⑩	소계	⑪	⑫	소계	
고용부	22	1	5	5	33	1	-	-	1	-	-	-	-	-	-	-	34
과기부	2	3	-	-	5	-	-	-	-	-	-	-	-	-	-	-	5
교육부	2	-	1	-	3	-	-	1	1	2	2	12	16	-	-	-	20
국방부	2	-	-	-	2	-	-	-	-	-	-	-	-	-	-	-	2
국토부	-	6	-	2	8	-	2	-	2	2	9	-	11	-	-	-	21
기재부	-	-	2	-	2	-	-	-	-	-	-	-	-	-	-	-	2
농림부	1	2	-	1	4	1	-	-	1	-	-	1	1	-	-	-	6
문체부	-	3	-	-	3	-	-	-	-	-	-	-	-	-	1	1	4
병무청	-	2	-	-	2	-	-	-	-	-	-	-	-	-	-	-	2
복지부	1	1	-	-	2	-	-	-	-	1	-	-	1	1	-	1	4
산림청	-	-	-	1	1	-	-	-	-	-	-	-	-	-	-	-	1
산통부	-	2	1	-	3	-	-	-	-	-	-	-	-	-	-	-	3
여가부	2	1	-	-	3	-	-	-	-	1	-	-	1	-	-	-	4
외교부	-	-	-	12	12	-	-	-	-	-	-	-	-	-	-	-	12
중기부	1	-	1	-	2	8	2	3	13	-	-	-	-	-	-	-	15
해수부	-	1	-	-	1	-	-	1	1	-	-	-	-	-	1	1	3
행안부	-	2	-	-	2	-	-	-	-	-	-	-	-	-	1	1	3
환경부	-	3	-	-	3	-	-	-	-	-	-	-	-	-	-	-	3
총합계					91				19				30			4	144

*참고: ① 교육훈련・체험・인턴 ② 전문분야 취업지원 ③ 중소기업 취업지원 ④ 해외진출 ⑤ R&D지원 ⑥ 경영지원 ⑦ 자본금지원 ⑧ 생활비 지원 및 금융 혜택 ⑨ 주거지원 ⑩ 학자금지원 ⑪ 건강 ⑫ 문화

○ 지자체 청년정책을 확인 할 수 있는 11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451개 정책이 수집되었음.

※ 6월 지자체장 선거 이전 자료이며, 선거 이후 지자체 정책에 따라 신설·삭제된 정책이 다수 있을 수 있음.

<표 2> 11개 지자체 청년 관련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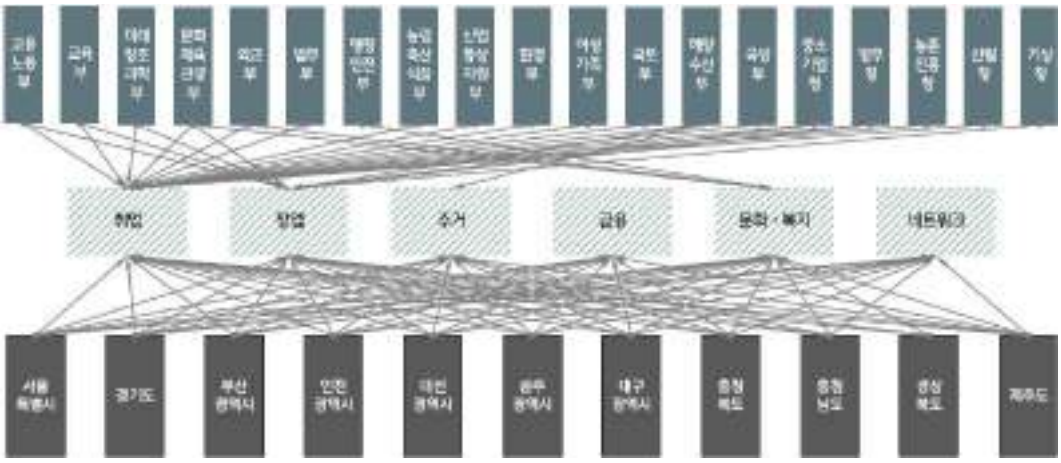
구분	정책 사업 수	주요 내용
서울시	21	청년활동지원 사업 외 20개 사업
경기도	31	청년따복공동체 사업 외 30개 사업
부산광역시	35	청년디딤돌카드 사업 외 34개 사업
인천광역시	50	청년활동생태계기반조성 사업 외 49개 사업
대전광역시	31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 외 30개 사업
광주광역시	47	광주청년창업펀드 사업 외 46개 사업
대구광역시	59	대구형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외 58개 사업
충청북도	64	충북청년광장(포럼) 외 63개 사업
충청남도	45	지역착근형청년프로그램운영 사업 외 44개 사업
경상남도	19	1社-1청년더채용릴레이운동 사업 외 18개 사업
제주도	49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해외인턴십 사업 외 48개 사업
계	451	청년활동지원 사업 외 450개 사업

○ 11개 지자체 정책을 유목화하면 취업, 창업, 주거, 금융, 문화·복지,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2〕 11개 지자체 청년정책 구분 결과

○ 이상의 정책은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취업, 창업, 주거, 금융, 문화·복지, 네트워크 등으로 영역을 구분할 수 있음.

- 중앙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취업 및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지자체 정책은 취업·창업 이외에 주거, 금융, 문화·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 실생활 연계된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림 3〕 중앙 및 일부 지자체 청년정책 분류 결과

3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분류 및 이용현황

가. 전달체계 분류

□ 전달 기관에 따른 분류

○ 청년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직접전달형, 중앙정부-전문기관 전달형, 중앙정부-전문기관-위탁기관 전달형 등 3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4〕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유형(원종학, 2016)

○ 한편, 3가지 분류를 세분화하면 전달 과정에서의 기관에 따라 총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표 3> 전달체계의 유형별 고용서비스 흐름

분류	유형	고용서비스 흐름
중앙정부 직접 전달형	1형	중앙부처 -> 수혜자
중앙정부-전문기관 전달형	2형	중앙부처 -> 공공기관 -> 수혜자
	3형	중앙부처 -> 민간기관 -> 수혜자
	6형	중앙부처 -> 지자체 -> 수혜자
중앙정부-전문기관 -위탁기관 전달형	4형	중앙부처 -> 공공기관 -> 위탁기관 -> 수혜자
	5형	중앙부처 -> 민간기관 -> 위탁기관 -> 수혜자
	7형	중앙부처 -> 지자체 -> 위탁기관 -> 수혜자

자료: 원종학. (2016). 청년일자리사업의 전달체계 유형화 및 효율성 개선방안.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달 체계 형태에 따른 분류

○ 청년고용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전달체계의 형태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 할 수 있음(청년위원회, 2016).

〔그림 5〕 전달방식에 따른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분(청년위원회, 2016)

○ 온・오프라인에 따른 각각의 제공 서비스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6〕 온・오프라인 전달체계별 제공 서비스

나. 전달체계 이용 현황[1)]

○ (**정보 취득 경로**) 학교 취업지원실을 대다수가 활용하였으며, 친구나 선배, 신문, 인터넷, 민간 취업알선 기관 순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음.

구분	빈도	전체 대비 비율
① 학교 취업지원실	704	34.7%
② 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안내 기관	75	3.7%
③ 노동부 워크넷 및 잡앱 등 온라인 서비스	151	7.4%
④ 민간취업 알선기관(잡코리아 등)	167	8.2%
⑤ 신문, TV, 인터넷을 통한 기업구인 정보	240	11.8%
⑥ 가족/친지를 통해	101	5.0%
⑦ 선생님을 통해	127	6.3%
⑧ 친구, 선배 등을 통해	202	10.0%
⑨ 취업 캠프에서	23	1.1%
⑩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81	4.0%
⑪ 기타	17	0.8%

〔그림 7〕 청년고용정책 정보 취득 경로

○ (**주요 이용 현황**) 대다수가 취업분야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용 방식은 정부 취업포털, 대학 내 취업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고 있었음.

구분	빈도	실 이용자 대비 비율	전체 대비 비율
① 취업	201	86.6%	21.2%
② 창업	13	5.6%	1.4%
③ 유학	6	2.6%	0.6%
④ 군대	5	2.4%	0.5%
⑤ 문화/복지	18	8.1%	2.0%
⑥ 정책참여 및 대외활동	17	8.2%	1.8%
⑦ 기타	2	1.0%	0.2%

구분	빈도	실 이용자 대비 비율	전체 대비 비율
① 정부취업포털	162	27.9%	17.2%
② 정부교육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사이트	22	15.9%	2.4%
③ 고용센터	38	18.3%	4.0%
④ 민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5	2.4%	0.5%
⑤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15	7.2%	1.6%
⑥ 정부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	18	8.7%	1.9%
⑦ 학교내 취업지원센터 및 취업지원관	144	69.2%	15.3%
⑧ 기타	1	0.5%	0.1%

〔그림 8〕 주요 서비스 이용 현황

1)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운용 방안(김기용 외, 2018) 자료 중 일부 발췌

4 온라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 온라인 청년센터

□ 추진 배경 및 경위

○ 청년을 위한 정책이 산재해 있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부족하고, 나에게 맞는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청년들 의견 다수

-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 발표) 관련 제도 및 지원 정책을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 기능 강화 필요

→ 정책 정보와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청년일자리 대책(18.3.15)에 온라인 청년센터 반영 및 5월 추경에 따른 후속 조치

□ 온라인 청년센터 주요 서비스 내용(안)

○ (정책 정보) 일자리·금융·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정부·자치단체등 정책 정보를 총괄하여 제공, 맞춤형 정보 검색 기능* 제공

○ (공간 정보) 전국 청년 공간(자치단체·민간 포함) 정보를 종합 제공

- 센터별 운영 서비스 및 공간(스터디룸 등) 정보, 예약시스템 운영

○ (온라인 상담)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 맞춤형 상담 제공

□ 온라인 상담 서비스 내용 및 방식

○ 상담 범위 및 역할

- 정책 상담(1차) : 청년관련 140여개 정책정보 및 전국의 120여개 공간정보 등을 안내·상담

- 맞춤형 상담 (2차) : 수혜이력 정보와 개인 진단 도구(개인별 상황과 필요지원 분야 Check)를 통해 개인별 단계별 맞춤형 정책 안내 및 진로 상담

- 대면 상담(3차): 대학일자리센터, 자치단체, 오프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OFF-Line 상담 연계

〔그림 9〕 온라인 청년센터 실시간 상담 프로세스

□ 주요 구축 및 운영 일정

○ 2019년 1/4분기 독립 사이트 개발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표 4〉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계획

구분	1단계 (정책 정보 중심으로 청년 워크넷 개편)	2단계 (청년 워크넷 內 정보 내실화)	3단계 (독립 사이트 운영)
시점	~ 2018. 8	~ 2018. 10	~ 2019. 3
도메인	·work.go.kr/jobyoung, youthcenter.go.kr 동시 사용	·work.go.kr/jobyoung, youthcenter.go.kr 동시 사용	· youthcenter.go.kr
제공 사이트	· 청년워크넷(일부 개편)	· 청년워크넷(일부 개편)	· 온라인 청년센터 독립사이트 운영
전산 기능 개편	· 정책 및 공간 정보 추가 · 기존 청년워크넷 일부 기능 삭제 및 개편	· 청년워크넷 기능 개편	· 별도 사이트 구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능 마련
정책 정보	· 중앙정부 144개 탑재 · 정책분류 개편 · 정책검색엔진 개편	· 정책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 정책정보 활용 콘텐츠 제작 · 수요자 맞춤 정책 매뉴얼 개발	· 자치단체 정책정보 수집 및 탑재 · 정책검색기능 강화
공간 정보	· 공간리스트 및 세부 정보 제공	· 지자체 연계 공간정보 업데이트	· 연동 가능한 공간 예약시스템 확인 및 연동

5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이슈

○ **효율적 청년정책 운영 필요**

- 청년고용의 질적·양적 악화 상황에서 일자리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 및 효율적 운영 필요

○ **청년지원사업 영역 재구조화 필요**

- 기존 정책 제공자 중심의 영역이 아닌 수혜자 위주의 영역 재구조화 필요
- 취업·창업 이외의 주거, 복지, 문화 등 영역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조화 필요**

- 온라인을 통한 정보 안내, 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활동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과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화 필요

○ **중앙-지방-민간 협력 확대 필요**

- 청년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필요

○ **온라인 전달체계 내실화**

- 상세한 정보를 정확하고 연계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고 통합정고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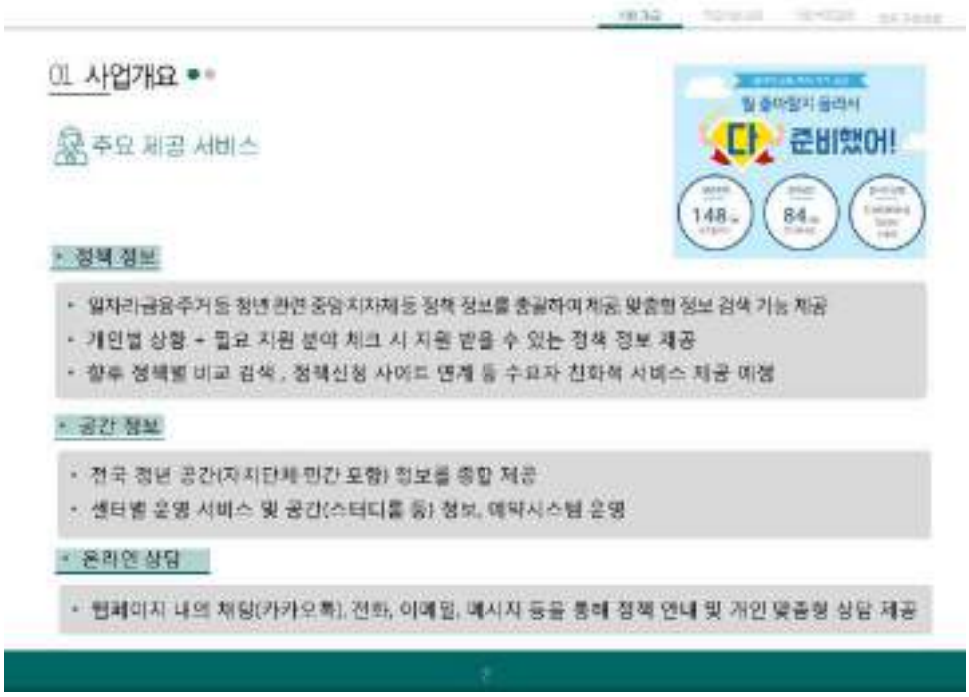
0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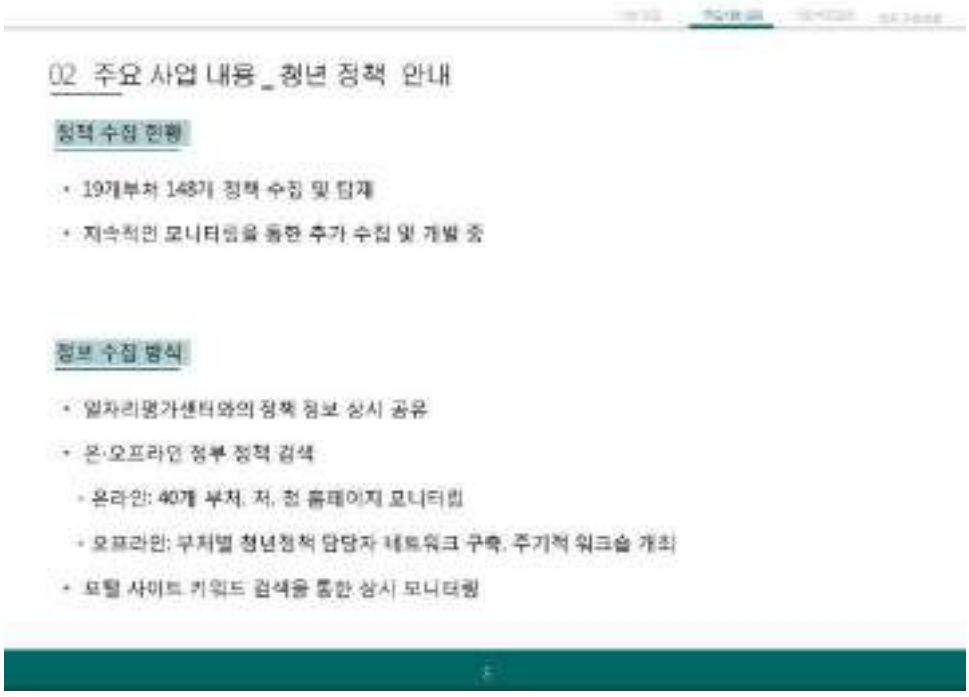
02 주요 사업 내용

03 사업 추진 일정

04 현재 개편 현황

01 사업개요
온라인 청년센터란?
청년 정책공간 정보 및 정책 안내상담을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 및 모바일 App
추진배경
• 청년 고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에코붐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향후 3~4년간 고용위기 우려
▶ 3.15 청년 일자리대책을 통해 정부는 예산세제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청년의 취업준비 지원을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사업' 포함
• 온라인 청년센터의 주요 서비스로 온라인 상담서비스 포함
:청년층의 온라인 선호 / 시공간적 제약 없이 정보 및 상담 제공 기능 필요 / 온오프라인 상담 연계 강화 반영


01 사업개요
주요 제공 서비스
다 준비했어!
148
84
• 정책 정보
• 일자리금융주거 등 청년 관련 중앙지자체 등 정책 정보를 총괄하여 제공, 맞춤형 정보 검색 기능 제공
• 개인별 상황 → 필요 지원 분야 체크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 정보 제공
• 향후 정책별 비교 검색, 정책신청 사이트 연계 등 수요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 예정
• 공간 정보
• 전국 청년 공간(지자체 민간 포함) 정보를 종합 제공
• 센터별 운영 서비스 및 공간(스터디룸 등) 정보, 예약시스템 운영
• 온라인 상담
• 웹페이지 내의 채팅(카카오톡), 전화, 이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정책 안내 및 개인 맞춤형 상담 제공


02 주요 사업 내용 _ 청년 정책 안내
정책 수집 현황
• 19개부처 148개 정책 수집 및 탑재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수집 및 개발 중
정보 수집 방식
• 일자리평가센터와의 정책 정보 상시 공유
• 온·오프라인 정부 정책 검색
- 온라인: 40개 부처, 지, 청 홈페이지 모니터링
- 오프라인: 부처별 청년정책 담당자 네트워크 구축, 주기적 워크숍 개최
•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02 주요 사업 내용 _ 청년 정책 안내
94개
32개
25개
10개
25개
16개
9개
4개
1개

02 주요 사업 내용 _ 청년 정책 안내
4개
1개
3개
30개
6개
11개
13개

02 주요 사업 내용 _ 청년 정책 안내

청년정책

02 주요 사업 내용 _ 공간정보 탑재
수집 현황
• 89개 공간 정보 탑재 중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수집 및 개발 중
주요 제공 정보
• 지역(시도, 시/군/구)
• 공간유형: 순수공간, 통합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 주요형태: 라운지형, 개인학습공간형, 회의실형 등
• 부대시설: 빔, PC, 프린터, 마이크

02 주요 사업 내용 _ 공간정보 탑재

지역	개수	공간 주제			
		취업 준비 공간 제공	공간 및 취업 프로그램 제공	창업 공간 제공	창업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서울특별시	96	21	63	0	12
부산광역시	10	0	4	0	6
대구광역시	7	0	3	0	4
인천광역시	10	0	1	0	9
광주광역시	10	4	4	0	2
대전광역시	8	0	2	0	6
울산광역시	4	0	2	0	2
경기도	21	0	10	1	10
강원도	5	1	1	0	3
충북도	5		3	0	2
충청남도	6	4	0	2	
전라북도	8	3	2	0	3
전라남도	6	1	3	1	4
경상북도	13	0	4	0	9
경상남도	8	0	4	0	4
제주특별자치도	2	0	1	0	1
계	220	34	112	4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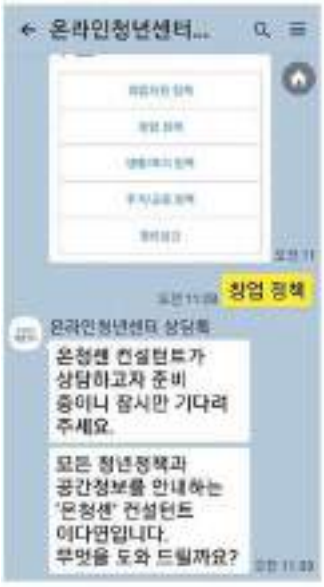
공간 유형에 따라 중복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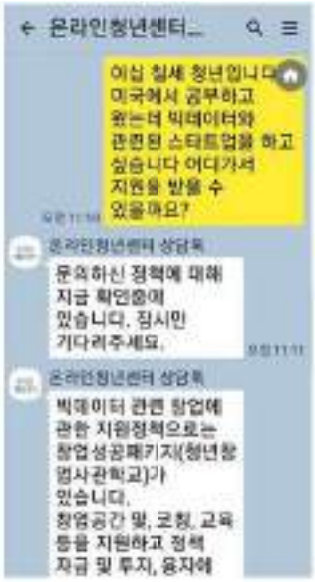
02 주요 사업 내용_ 온라인 실시간 상담
• 50인 규모 상담센터 운영 준비 중(18. 10. 29. 상담 오픈 예정)
• 모든 청년정책 안내 및 상담, 진로 및 취업 관련 고민 조기상담 및 연계
(사전) 자기 정보 탐색
(1차) 정책 안내
(2차) 맞춤형 정책 설계
(3차) 조기상담 및 심층상담 연계
온라인 청년센터에 탑재된 청년 정책 및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탐색
청년관련 1400여개 정책정보 및 전국의 120여개 공간정보 등을 안내상담
수혜이력정보와 개인별 상황 확인을 통해 개인에게 단계별 맞춤형 정책 안내
오프라인대면 또는 워크넷 온라인 게시판 상담으로의 연계 (대학일자리센터 및 자치단체 등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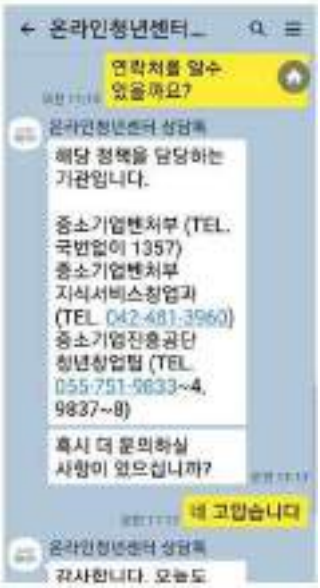
02 주요 사업 내용_ 온라인 실시간 상담
온라인 상담 프로세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청년정책
148
청년공간
89
정책상담
TALK
정책 분류별 찾기
취업·지원

WORKNET
청년정책
청년공간
청년일자리
청년초화업소기업
청년정책
정책 분류별 찾기
상세 찾기
취업지원
창업
생활·복지
주거·금융
TALK 청년정책 실시간 상담
HOT청년정책


온라인청년센터...
창업 정책
온라인청년센터 상담톡
온청센 컨설턴트가 상담하고자 준비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청년정책과 공간정보를 안내하는 '온청센' 컨설턴트 이다연입니다. 뭐든 도와 드릴까요?


온라인청년센터...
이십 초세 청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디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온라인청년센터 상담톡
문의하신 정책에 대해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온라인청년센터 상담톡
빅데이터 관련 창업에 관한 지원정책으로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창업공간 및, 코칭, 교육 등을 지원하고 정책 자금 및 투자, 융자에


온라인청년센터...
연락처를 알수 있을까요?
온라인청년센터 상담톡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중소기업벤처부 (TEL.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벤처부 지식서비스창업과 (TEL. 042-481-3960)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팀 (TEL. 055-751-5633~4, 9837~8)
혹시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청년센터 상담톡
감사합니다. 오늘도

02 주요 사업 내용_ 기타 서비스
정책 비교분석
• 청년들이 공급해 하는 유사정책 비교
• 24개 정책 비교 탐색 및 지속적 개발
• 정책간 유사점, 차이점 설명
• 추가적인 정책 탐색 지원

02 주요 사업 내용_ 기타 서비스
실시간 정책 콘텐츠
• 청년들이 주로 찾는 정책 관련 콘텐츠 종합 제공
• 주요 사이트, 블로그 등의 콘텐츠 링크형태로 제공
• 청년 유튜버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 예정

03 사업 추진 일정

- 2018년 1/4분기 독립 사이트 개발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구분	1단계 (정책 정보 중심으로 청년 워크넷 리뉴얼)	2단계 (청년 맞춤형 개인 정보 대상화)	3단계 (독립 사이트 운영)
시점	~ 2018. 6	~ 2018. 12	~ 2019. 3
도메인	· work.go.kr/jobyoung · youthcenter.go.kr 동시 사용	· work.go.kr/jobyoung · youthcenter.go.kr 동시 사용	· youthcenter.go.kr
제공 사이트	· 청년워크넷(고용부) 개편	· 청년워크넷(고용부) 개편	· 청년 정보서비스 통합사이트 운영
진단 기능 개편	· 정책 및 공간 정보 추가 · 기존 청년워크넷 일부 기능 삭제 및 개편	· 청년워크넷 기능 개편	· 별도 사이트 구축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능 마련
정책 정보	· 중앙정부 144개 입력 · 정책분류 개편 · 정책검색엔진 개편	· 정책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 정책정보 일정 콘텐츠 제작 · 주요지 맞춤 정책 메뉴얼 개발	· 지자체 정책정보 수집 및 입력 · 정책검색기능 강화
공간 정보	· 공간리스트 및 세부 정보 제공	· 지자체 외에 공간정보 업데이트	· 연동 가능한 공간 예약시스템 확인 및 연동

04 현재 개편 현황
멈췄센 온.청.센!
수고했어
오늘도
지금
ON

감사합니다

사례 발표 2

청년 취업 관련 실패 및 부적응 사례의 이해

김희수 (한세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장 교수)

청년 취업 관련 실패 및 부적응 사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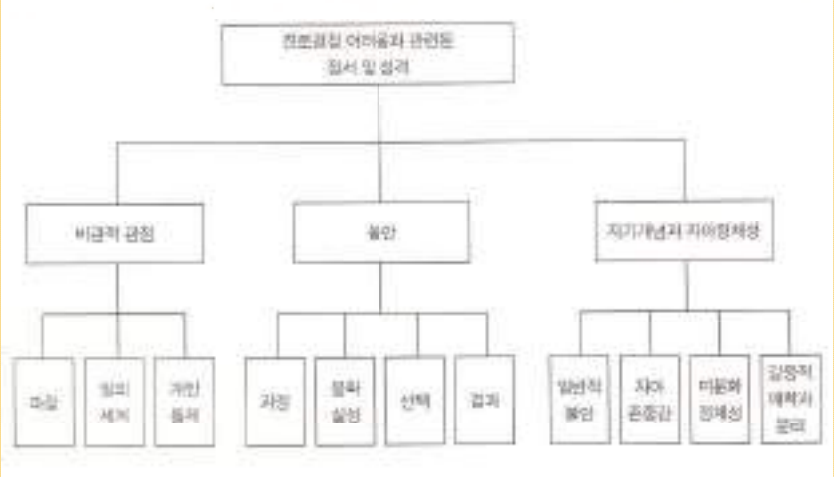
김희수
한세대학교

인지적 측면의 진로의사결정 곤란의 범주

Gati, Kausz & Osipow(1996)

진로결정 어려움과 관련된 정서 및 성격 척도의 구조

김민성, 연규진(2014)



구 성

1. 진로 타협의 문제가 있는 내담자 사례

2. 흥미와 현실간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내담자 사례

5

1. 진로 타협의 문제가 있는 내담자 사례

1. 내담자 기초 자료

(1) 내담자 인적 사항

① 이름(성별) : 허풍씨(남)(가명으로 기재)

② 연령(혼인여부) : 31세(미혼)

③ 학력 : 대학교 졸업

④ 기타 상담에 필요한 내용: 종교 무, 가족과 함께 거주

(2) 가족관계

▪ 조부(15년 전 간암 투병 후 사망) : 내담자에게는 잘했으나 경제능력이 떨어지셨고, 노년에 술을 많이 드시다가 간암으로 사망 하였음

▪조모(80세) : 남편 대신 강한 생활력으로 5남매를 키우신 분. 현재도 노인정의 리더이고, 본인의 식사는 스스로 준비해서 드시는 건강하고 독립적인 분.

▪부(60세) : 퇴역 장교. 현재 중견기업의 이사. 자수성가한 장남.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진로설계를 하였으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내담자에게 실망하여 비난을 하고 있음.

▪모(54세) : 고졸.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학원 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었음. 현재 아들과 남편의 갈등에 매우 힘겨워 하고 있음.

▪여동생(29세) : 서울의 00여대 학부와 대학원 졸업. 유럽에서 정규직으로 취업 중. 내담자보다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해외 취업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6

1. 진로 타협의 문제가 있는 내담자 사례

2. 내담자에 대한 관찰 및 문제 발달

(1) 관찰된 전반적인 행동 특성

▪ 신체적 특징: 키는 약 175cm 정도, 몸무게 90Kg 정도의 다소 비만한 체형. 훈남형이지만, 눈 깜박임이 있고 눈 마주침이 잘 되지 않음.

▪ 면담 중 특성: 불안할 때 옷의 단추를 만지거나 입술을 만지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임. 목소리 톤이 차분하지만, 긴장과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짐.

(2) 성장배경 및 과정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가장 높은 지능지수를 보였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전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은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였었음. 그러나 아버지가 기대하는 SKY 대학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컸고, 고3때는 게임에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결국 원하는 대학 진학을 실패하고 재수까지 하였으나 수도권 대학에 들어가게 됨.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졸업 후 2년 간을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게임을 하면서 집이나 집 근처 PC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음. 결구 아버지가 본인의 친구인 중견기업 사장에게 부탁하여 중견기업에 취업하였으나, 8개월의 입사 기간 동안 상사의 권위적 태도를 견디기 힘들어 하였고, 특히 직장 업무 상 만나게 되는 대형 약국의 약사들을 보면서 자신은 약사가 되어야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음.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나, 결국 약대 입시를 준비하는 아들의 학원비를 지원하였음. 그러나 작년에 입시에 실패하였고, 올해도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의 점수가 매우 저조하여, 전국 어느 약대에도 입학할 형편이 아닌 상황에 봉착하였음. 아버지는 분노하여 집을 나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만류로 아버지가 주무실 때 집에 들어오고, 아버지가 출근한 이후에 일어나서 생활하고 있음.

7

1. 진로 타협의 문제가 있는 내담자 사례

(3) 문제 형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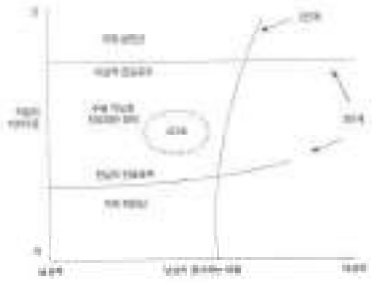
아버지는 본인이 우수한 능력이 있음에도 집안 형편 때문에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학비가 저렴한 장교육성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 이후에도 장남으로 어머니와 동생,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애써온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한을 자주 내담자에게 풀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내담자는 자신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성공한 아버지를 본받아 우수한 대학을 가야 하며, 더 유능한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키어왔음. 고3에 이르러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불안이 의미 있게 높아지고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도 존재하던 tic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인터넷 (게임) 과사용으로 보여짐. 심리치료적 개입은 없었으며, 대학 졸업 무렵에 이런 증상은 다시 재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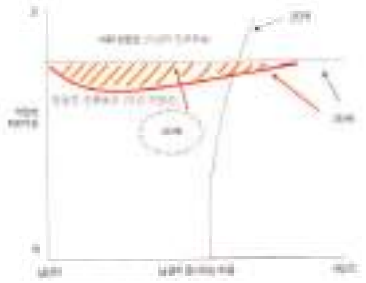
대기업만을 준비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높은 포부 수준을 그대로 수용한 데서 오는 것이었으며, 내담자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직장에 취업하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또 한 번 입게 되었음. 내담자가 취업한 직장에서 적응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약사들의 권력을 알게 된 후, 다시 높은 포부를 발휘하여 약대 진학을 준비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임.

20대 후반에 다시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감시와 비난은 더욱 커졌고, 인터넷(게임)으로의 회피와 입시 불안은 더욱 과중되어 현재 입시 실패로 연결됨. 오랜 취업 준비 과정으로 대인관계는 더욱 협소해지고, 대인관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가족과의 갈등은 내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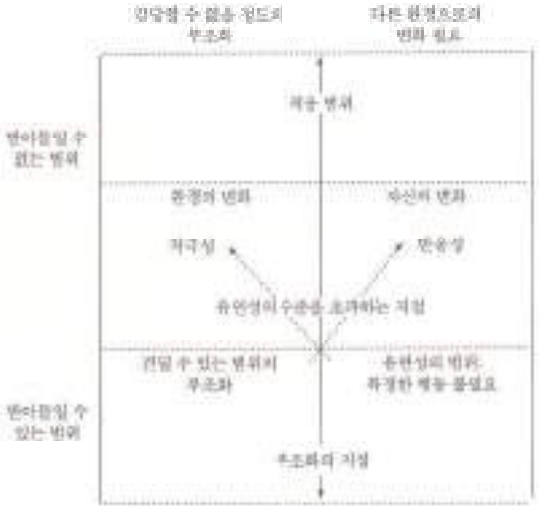
제한-타협이론의 관점에서 본 내담자 문제 (Gottfredson,2005)





9

적응양식 차원들간의 관계 (Lofquist & Dawis,1991)



10

취업희망자의 희망 입사형태별 희망 월평균 임금

응답자특성별(1)	응답자특성별(2)	2017									
		희망 입사 형태 (%)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							
		신규직	경력직	100만원 미만 (%)	100~150 만원 미만 (%)	150~200 만원 미만 (%)	200~300 만원 미만 (%)	300~400 만원 미만 (%)	400~500 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희망 임금 평균 (만원)
전체	소계	61.4	38.6	2.8	8.7	22.2	47.6	13.1	2.8	2.8	237.0
성별	남자	62.5	37.5	1.0	2.9	8.6	52.2	23.3	6.3	5.6	284.0
	여자	60.7	39.3	3.9	12.6	31.4	44.5	6.3	0.5	0.9	205.0
연령별	19~34세	76.1	23.9	1.2	4.6	19.6	55.8	13.7	1.3	3.8	263.0
취업여부별	취업	37.8	62.2	1.6	6.2	12.4	49.0	19.3	6.5	4.9	315.0
	비취업	70.9	29.1	3.2	9.7	26.2	47.0	10.6	1.4	1.9	206.0
학력별	중졸이하	44.9	55.1	10.7	14.3	27.2	36.7	6.6	4.5	-	180.0
	고졸	70.8	29.2	1.7	8.9	22.1	47.3	14.8	1.9	3.3	221.0
	대졸이상	50.3	49.7	2.3	6.9	21.1	51.1	12.0	4.0	2.7	281.0
혼인상태별	미혼	80.7	19.3	-	3.1	14.8	60.5	15.4	2.0	4.2	257.0
	유배우	45.9	54.1	3.9	13.8	30.1	36.5	10.7	3.3	1.7	223.0
	사별/이혼	35.2	64.8	13.7	13.1	19.9	34.4	13.7	5.2	-	192.0
경력단절여성	소계	52.7	47.3	4.1	16.8	39.2	36.1	3.9	-	-	170.6

11

일자리 인식 실태(2017,천안)

응답자특성별(1)	응답자특성별(2)	교통수단이 불편해도 일을 하겠다				계약직, 비정규직에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소계	6.0	36.8	33.0	24.2	8.7	47.9	26.0	17.3
성별	남자	10.6	45.9	28.7	14.7	10.6	40.6	28.7	20.2
	여자	2.8	30.7	35.9	30.5	7.5	52.9	24.2	15.4
연령별	19~34세	4.7	37.3	34.1	23.9	5.8	40.6	30.7	23.0
취업여부별	취업	11.8	38.4	30.6	19.1	11.1	47.7	23.3	17.8
	비취업	3.6	36.2	34.0	26.2	7.8	48.0	27.1	17.2
학력별	중졸이하	4.7	45.4	32.4	17.4	12.2	65.1	17.1	5.7
	고졸	5.7	39.6	32.8	21.9	7.0	51.2	27.0	14.9
	대졸이상	6.8	29.8	33.5	30.0	10.7	37.6	26.9	24.8
혼인상태별	미혼	7.3	41.0	31.9	19.9	7.8	36.5	32.9	22.7
	유배우	4.5	31.0	36.5	28.0	8.7	56.6	21.1	13.5
	사별/이혼	6.7	48.3	17.4	27.7	14.9	67.5	11.5	6.1
희망입사형태별	신규직희망	4.6	38.2	33.5	23.7	5.6	47.9	29.3	17.3
	경력직희망	8.1	34.7	32.3	25.0	13.7	48.0	20.8	17.5
경력단절여성	소계	2.8	20.1	39.3	37.8	10.0	56.7	19.8	13.5

12

일자리 인식 실태(2017,천안)

응답자특성별(1)	응답자특성별(2)	2017											
		원하지 않는 분야라도 일을 하겠다				임금 수준이 낮아도 일을 하겠다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을 하겠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소계	7.1	38.1	29.7	25.1	3.6	32.7	39.9	23.7	15.0	63.5	16.5	5.0
성별	남자	9.8	34.2	28.0	28.0	5.3	34.4	38.7	21.6	17.0	60.8	17.5	4.8
	여자	5.3	40.7	30.8	23.1	2.4	31.7	40.7	25.2	13.6	65.4	15.8	5.2
연령별	19~34세	5.8	33.4	33.6	27.2	2.8	26.7	44.1	26.4	14.2	59.7	20.2	5.9
취업여부별	취업	10.1	36.3	27.9	25.7	4.1	25.7	41.3	28.9	18.1	63.2	13.1	5.6
	비취업	5.9	38.8	30.4	24.8	3.4	35.6	39.4	21.7	13.7	63.7	17.9	4.8
학력별	중졸이하	8.9	60.5	21.3	9.4	5.7	51.4	26.4	16.5	17.7	70.3	7.7	4.3
	고졸	7.4	39.5	30.3	22.8	3.8	35.0	39.8	21.4	14.5	65.8	18.2	1.5
	대졸이상	6.2	29.3	31.2	33.3	2.7	23.6	44.0	29.6	15.0	57.7	16.1	11.1
혼인상태별	미혼	7.3	31.7	33.5	27.5	4.9	25.6	46.0	23.5	15.2	58.5	20.9	5.3
	유배우	6.5	42.9	27.1	23.5	2.1	36.1	36.5	25.3	15.0	67.7	12.9	4.4
	사별/이혼	10.5	49.7	21.2	18.7	5.0	59.5	21.2	14.3	12.7	69.8	10.8	6.8
희망입사형태별	신규직희망	6.6	40.0	30.2	23.3	4.1	32.7	43.3	19.9	15.0	60.5	19.5	5.0
	경력직희망	8.0	35.1	29.0	27.9	2.8	32.8	34.6	29.8	14.9	68.4	11.7	5.1
경력단절여성	소계	3.9	41.5	30.6	24.0	2.3	33.0	36.8	27.9	15.8	66.8	12.5	4.9

13

일자리 인식 실태(2017,천안)

응답자특성별(1)	응답자특성별(2)	2017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신규직)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경력직)						
		100만원 미만 (%)	100~150 만원 미만 (%)	150~200 만원 미만 (%)	200~300 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희망임금 평균 (만원)	100만원 미만 (%)	100~150 만원 미만 (%)	150~200 만원 미만 (%)	200~300 만원 미만 (%)	300~400 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희망임금 평균 (만원)
전체	소계	3.1	9.3	24.0	50.8	12.9	206.1	2.2	7.9	19.5	42.5	18.4	9.6	286.2
성별	남자	0.7	2.7	12.0	63.3	21.2	240.4	1.5	3.3	3.1	33.6	35.9	22.6	356.5
	여자	4.7	13.8	32.3	42.2	7.1	182.4	2.5	10.8	30.0	48.2	7.2	1.3	241.1
연령별	19~34세	4.9	18.9	58.5	16.7	3.3	224.3	1.8	3.6	21.9	47.0	18.3	7.4	388.1
취업여부별	취업	0.9	8.9	16.1	64.5	9.6	206.8	2.1	4.6	10.2	39.5	26.2	17.4	380.9
	비취업	3.6	9.3	25.7	47.9	13.6	205.9	2.2	10.7	27.5	45.0	11.7	3.0	205.0
학력별	중졸이하	17.6	11.0	39.0	32.4	-	150.2	5.0	17.0	17.6	40.3	12.0	8.2	205.0
	고졸	1.5	8.6	21.5	50.5	18.0	219.3	2.0	9.7	23.5	39.8	18.8	6.2	223.7
	대졸이상	3.2	10.5	26.0	56.3	4.1	188.8	1.4	3.2	16.1	45.8	20.0	13.5	373.7
혼인상태별	미혼	-	3.2	15.5	62.6	18.7	1.2	-	2.8	12.0	51.7	21.5	12.0	359.2
	유배우	5.8	19.7	39.6	32.3	2.6	164.0	2.3	8.7	22.1	40.0	17.6	9.3	273.0
	사별/이혼	27.9	12.1	19.6	28.5	11.8	159.5	6.0	13.7	20.1	37.6	16.4	6.3	209.9
경력단절여성	소계	6.8	21.6	45.7	24.9	1.1	154.6	1.2	11.4	31.9	48.6	7.0	-	188.4

14

인천시 남구 응답자 특성 별 취업자 현황(2017)

응답자특성별(1)	응답자특성별(2)	2017														
		일을하였음	종사산업													
		소계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기타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전체	소계	53.2	19.8	9.7	15.8	8.8	8.3	3.6	2.4	2.9	3.7	2.9	6.1	7.2	4.9	4.0
월평균소득수준별	100만원미만	19.4	4.2	8.3	19.3	6.4	10.9	1.7	4.2	3.0	7.1	3.1	7.0	14.2	8.3	2.4
	100~200만원미만	51.7	21.6	6.4	17.8	7.4	10.0	1.8	2.2	1.9	3.7	3.3	4.3	10.4	7.7	1.4
	200~300만원미만	58.9	24.5	12.1	13.8	9.6	9.9	3.7	1.4	2.3	2.5	1.8	4.1	3.7	5.6	5.1
	300~400만원미만	61.0	18.4	10.4	16.5	8.5	8.1	4.6	3.0	4.5	5.1	2.8	4.7	4.8	4.0	4.6
	400~500만원미만	63.4	24.6	6.6	16.5	5.7	4.6	4.0	2.0	1.6	4.4	2.8	8.9	10.4	2.3	5.4
	500만원이상	66.3	11.9	9.8	15.0	12.6	5.8	3.7	3.6	3.9	1.8	5.4	11.6	9.6	3.0	2.2
성별	남자	64.8	22.4	14.4	14.6	12.8	5.2	4.4	2.4	3.0	3.9	3.4	4.1	1.7	4.1	3.5
	여자	41.5	15.8	2.3	17.6	2.4	13.1	2.2	2.4	2.8	3.3	2.2	9.2	15.7	6.3	4.6
연령별	13 ~ 29세	40.3	17.2	3.2	18.3	5.4	14.0	8.0	-	3.9	4.4	2.7	6.5	8.3	4.9	3.2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24.0	11.3	7.3	10.4	6.2	18.0	-	3.5	-	12.2	5.4	2.5	17.0	1.3	4.7
	중졸	31.0	14.2	12.5	14.6	18.3	12.6	2.1	1.6	-	3.8	2.3	2.9	6.4	6.2	2.6
	고졸	56.1	24.3	10.4	17.4	9.7	9.9	0.9	2.3	1.8	3.2	1.5	3.3	4.7	6.1	4.5
	대학교졸업이상	68.8	16.5	8.7	14.8	6.2	4.4	7.5	2.5	5.1	3.1	4.5	10.5	9.0	3.7	3.5

15

인천시 남구 응답자 특성 별 취업자 현황(2017)

응답자특성별(1)	응답자특성별(2)	2017 종사직업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기타	종사상지위 고용원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소계	2.7	19.4	13.6	11.8	12.0	11.1	15.6	13.6	0.2	5.9	13.1	1.0	80.0	74.8	15.2	10.0
월평균소득수준별	100 만 원 미만	0.9	8.8	5.8	21.3	10.1	6.5	5.0	41.5	-	2.3	12.1	-	85.6	28.7	44.0	27.4
	100~200 만원미만	-	13.6	7.1	14.8	8.3	11.4	19.7	24.9	-	3.3	8.2	-	88.5	58.2	22.6	19.2
	200~300 만원미만	0.5	15.7	16.0	12.8	10.3	15.6	17.3	11.6	0.2	4.0	13.8	0.7	81.5	76.7	12.1	11.1
	300~400 만원미만	2.7	21.3	11.0	11.8	17.5	9.4	15.4	10.2	0.8	7.1	14.3	2.2	76.5	83.9	11.5	4.6
	400~500 만원미만	4.0	27.0	17.6	6.1	14.1	7.2	15.7	8.3	-	7.1	13.3	0.7	78.9	83.9	11.3	4.8
	500 만 원 이상	9.7	28.3	18.7	7.5	9.8	8.8	12.5	4.8	-	11.4	14.6	1.6	72.4	89.1	9.6	1.4
성별	남자	3.9	17.6	12.6	6.4	10.1	16.6	20.8	11.6	0.4	6.3	15.3	0.1	78.2	77.9	11.7	10.4
	여자	0.8	22.3	15.3	20.1	15.0	2.4	7.5	16.6	-	5.3	9.5	2.4	82.9	70.2	20.4	9.4
연령별	13 ~ 29 세	0.5	22.5	18.9	16.0	19.0	5.3	9.7	7.5	0.5	0.5	3.7	-	95.8	67.3	23.2	9.5
교육정도별	초졸이하	1.0	2.5	3.4	19.7	6.2	11.6	9.4	46.2	-	5.6	7.1	-	87.3	36.6	40.2	23.2
	중졸	1.2	4.1	3.8	19.3	11.7	15.2	16.3	28.5	-	2.6	16.5	1.8	79.1	56.4	23.5	20.1
	고졸	1.6	10.8	9.9	14.2	14.2	11.9	22.4	14.8	0.1	6.8	14.4	1.5	77.3	71.0	16.8	12.2
	대학교졸업이상	4.5	34.8	21.2	6.5	10.2	9.2	8.1	5.1	0.4	5.5	11.6	0.4	82.5	87.5	8.5	4.0

2018학년도 약학대학별 최종결쟁률 (2017. 11. 20 기준)

원서접수 인원 약 5,300여명으로 2017학년도 원서접수 인원대비 소폭 감소
가군 평균 경쟁률 5.70 : 1 / 나군 평균 경쟁률 5.06 : 1

대학명	해당 군	지원인원	경쟁률	전년대비 증감
CHA의과대	가	709	23.63 : 1	▼ 9.10
가천대	가	199	6.63 : 1	▲ 0.53
가톨릭대	가	214	7.13 : 1	-
경희대	가	123	6.15 : 1	▲ 2.25
계명대	가	91	9.10 : 1	▲ 1.00
단국대	가	160	6.40 : 1	▼ 4.47
덕성여대	가	193	4.83 : 1	▼ 0.15
동덕여대	가	88	4.40 : 1	▼ 0.05
부산대	가	331	8.28 : 1	▲ 0.78
삼육대	가	147	9.80 : 1	▼ 0.53
성균관대	가	108	2.40 : 1	▼ 0.38
숙명여대	가	207	3.45 : 1	▼ 0.62

대학명	해당 군	지원인원	경쟁률	전년대비 증감
아주대	가	97	4.04 : 1	▲ 0.44
영남대	가	117	5.85 : 1	▲ 0.35
우석대	가	113	8.07 : 1	-
원광대	가	146	10.43 : 1	▼ 1.28
이화여대	가	237	4.74 : 1	▼ 2.04
인제대	가	136	12.36 : 1	▼ 1.46
전남대	가	104	5.78 : 1	▲ 1.00
중앙대	가	221	3.40 : 1	▼ 0.06
충남대	가	63	3.50 : 1	▼ 0.33
충북대	가	116	6.82 : 1	▲ 1.82
한양대	가	79	2.63 : 1	▼ 0.40

2018학년도 약학대학별 최종결쟁률 (2017. 11. 20 기준)

대학명	해당 군	지원인원	경쟁률	전년대비 증감
강원대	나	180	4.50 : 1	▼ 0.70
경북대	나	86	5.73 : 1	▲ 1.73
경상대	나	95	4.75 : 1	▼ 0.60
경성대	나	167	5.57 : 1	▼ 2.00
경희대	나	162	8.10 : 1	-
계명대	나	67	6.70 : 1	▼ 0.60
고려대	나	258	9.92 : 1	▼ 3.78
대구가톨릭대	나	178	5.93 : 1	▼ 0.80
덕성여대	나	168	4.20 : 1	▼ 0.40
동국대	나	119	3.97 : 1	▼ 0.78
동덕여대	나	94	4.70 : 1	▼ 0.05
목포대	나	152	8.44 : 1	▲ 1.05
부산대	나	310	10.33 : 1	▲ 0.73
삼육대	나	154	10.27 : 1	▼ 0.93
서울대	나	144	2.29 : 1	▼ 0.01

대학명	해당 군	지원인원	경쟁률	전년대비 증감
성균관대	나	71	3.55 : 1	▲ 0.95
숙명여대	나	55	2.75 : 1	▼ 0.90
순천대	나	116	6.44 : 1	▼ 0.01
연세대	나	210	7.00 : 1	▼ 2.90
영남대	나	105	5.25 : 1	▼ 0.70
우석대	나	77	5.50 : 1	▼ 0.36
원광대	나	119	8.50 : 1	▼ 2.50
이화여대	나	380	5.43 : 1	▼ 1.30
인제대	나	115	10.45 : 1	▼ 1.64
전남대	나	109	4.54 : 1	▼ 1.38
조선대	나	295	5.67 : 1	▲ 0.09
중앙대	나	166	3.02 : 1	▼ 0.82
충남대	나	78	4.59 : 1	▲ 0.35
충북대	나	74	4.35 : 1	-

18

2018년 정시 영상매체 유관학과 경쟁률

- 가군

학교명	전공		2017년 정시 모집인원	2017년 정시 지원인원	2017년 정시 경쟁률	2018년 정시 모집인원	2018년 정시 지원인원	2018년 정시 경쟁률	2017년 대비
가톨릭대	연극극술학과		15	703	47.27	15	779	51.93	▲ 4.66
계명대	연극뮤지컬과		8	75	9.38	8	61	7.63	▼ 1.75
★단국대	연극(연기)		7	536	76.57	7	567	81.00	▲ 4.43
	뮤지컬(연기)								
동국대	연극학부		13	320	24.62	12	441	36.75	▲ 12.13
★동서대	뮤지컬과		11	55	5.0	11	36	3.27	▼ 1.73
	연기과		12	128	10.67	10	61	6.10	▼ 4.57
★목원대	성악뮤지컬학과		7	29	4.14	8	21	2.63	▼ 1.51
백석대	연기예술		20	452	22.60	21	427	20.10	▼ 2.50
	뮤지컬과	자유곡 2	15	67	8.07	16	135	8.44	▼ 0.63
		자유곡1, 자유무용1							
서경대	모델연기(남)		6	89	14.83	14	300	21.42	▲ 6.59
	모델연기(여)		8	66	8.25	14	151	10.79	▲ 2.54
성결대	연극영화학부		10	267	26.70	10	270	27.00	▲ 0.30
★성신여대	미디어영상연기		9	327	36.33	10	325	32.50	▼ 3.83
★세한대	뮤지컬과		6	14	2.33	7	8	1.14	▼ 1.19
	방송영화학과								
예원예술대	연극영화과		6	107	17.83	12	125	10.42	▼ 7.41
	뮤지컬과		14	31	2.21	12	48	4.0	▲ 1.79
인천대	공연예술학과		6	192	32.00	6	140	23.33	▼ 8.67
중부대	연극영화학과		18	239	13.28	17	441	25.94	▲ 12.6
중앙대	연희예술(음악극)		2	32	16.0	-	-	-	통합입시
청주대	영화학과		24	254	10.83	-	-	-	통합
한세대	공연예술학과		8	243	30.38	8	230	28.88	▼ 1.5
★호서대	연극트랙		10	334	33.40	8	204	25.50	▼ 7.9
한양대	연극과		15	260	17.33	16	400	25.00	▲ 7.67

19

2. 흥미와 현실간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내담자 사례

1. 내담자 기초 자료

(1) 내담자 인적 사항

① 이름(성별) : 충격양(여)(가명으로 기재)

② 연령(혼인여부) : 25세(미혼)

③ 학력 : 대학교 졸업

④ 기타 상담에 필요한 내용: 종교 무, 가족과 함께 거주

(2) 가족관계

▪부(52세) : 출판사 대표. 내담자의 꿈을 수용하였고, 물심양면의 지원을 하였음. 자녀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지는 못함

▪모(52세) : 교사. 내담자의 희망을 오랫동안 반대하였지만, 내담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내담자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음.

▪오빠(27세) :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음. 열등감이 심했었으나, 전문대 부사관학과에 진학한 후, 자신감이 생겼고, 현재 직업 군인으로 재직 중.

20

2. 흥미와 현실간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내담자 사례

2. 내담자에 대한 관찰 및 문제 발달

(1) 관찰된 전반적인 행동 특성

▪ 신체적 특징: 키는 약 160cm 정도, 몸무게 45Kg 정도의 미인형.

▪ 면담 중 특성: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며, 상담자를 대할 때 예의 밝고 표정도 밝았으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이 경험한 배우로서의 직업 여건을 말할 때는 매우 격양된 목소리를 보였음.

(2) 성장배경 및 과정

초등학교 시절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춘다는 이야기를 들은 내담자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됨. 중학교 2학년때 부모도 모르게 혼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오디션을 보러 갔고, 합격하여 연습생 생활을 4년간 하였으나, 데뷔를 하지는 못함. 고 3에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꿈은 접고,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결정하여 입시를 준비하였고,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대학에 입학함. 재수도 하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대학 생활에서 전공 만족도는 매우 높았음. 교직을 이수하였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권함때문이고, 실제로는 배우가 되는 꿈을 졸업할 때까지 갖게 되었음. 졸업 후 오디션을 거쳐서 공연을 할 때만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의 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내담자는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됨. 그리고 배우들의 수입에 대해서도 계약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 기대보다 너무 낮은 출연료에 실망을 하게 됨. 내담자는 자신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한 어린 시절 선생님들이 원망스럽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모두 직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진작 알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음.

21

2. 흥미와 현실간의 격차를 이해하지 못한 내담자 사례

(3) 문제 형성 과정

내담자는 적극적인 성격과 분명한 흥미와 적성을 보였기 때문에 일찍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됨.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전공의 수업 내용이 흥미롭고, 학과 학생들과도 잘 어울리는 등 진로 선택은 적절했다고 보여짐.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가 되고자 하는 전공자나 희망자는 너무 많은 반면, 실제로 현장에서 원하는 신인 배우의 수는 매우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우로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배우가 되어도 수입이 너무 적다는 것을 졸업 후에야 알게 되면서 유일한 꿈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게 됨. 이 내담자는 선배들에게 열악한 배우의 세계를 들으면서도 실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과에 만연해 있다고 함. 졸업 후 전혀 새로운 길에 우연한 계기로 이동하는 선배들의 모습만 보았지, 진로를 합리적으로 재결단하는 과정을 본 적이 없어서, 불안해 하고만 있음.

22

- 나군

학교명	전공	2011년 현재			2010년 현재			2011년 대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증감
가톨릭관동대	방송연예학과	10	55	1.53	12	18	1.50	▲ 0.03
강남대	연극영화학과	11	0	0.00	7	34	4.86	▲ 4.86
경기대	연기학과	13	554	42.38	14	773	55.21	▲ 12.83
경희대	극작학과	15	276	18.40	10	256	25.6	▲ 7.2
	연출학과	15	193	12.90	10	27	2.70	▼ 10.2
★경희대	연극영화학과	4	42	10.50	4	48	12.00	▲ 1.5
★대전대	방송공연예술학과							
동덕여대	방송연예과(주)	9	296	32.78	9	217	24.11	▼ 8.67
	방송연예과(야)	3	139	46.33	8	212	26.50	▼ 19.83
목원대	TV영화학부(연기)	8	65	8.13	7	72	10.29	▲ 2.16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9	76	8.44	9	72	8.00	▼ 2.44
상명대	연극학과	7	163	23.29	7	222	31.71	▲ 8.42
	영화영상학과	5	67	13.40	5	95	19.00	▲ 5.6
서경대	뮤지컬학과(남)	7	329	21.93	7	330	23.57	▲ 1.64
	뮤지컬학과(여)	8			7			
서원대	공연영상학과	15	35	2.33	-	-	-	과 폐지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세명대	공연영상학과	20	157	7.85	20	181	9.05	▲ 1.2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11	653	59.36	11	705	64.09	▲ 4.73
수원대	연극영화학과	10	577	57.70	5	349	69.8	▲ 12.1
숭실대	영화예술전공	2	36	18.0	22	225	10.23	▼ 7.77
신한대	공연예술학과	5	186	37.20	10	563	56.3	▲ 19.1
★용인대	연극학과	8	148	18.50	6	222	37.00	▲ 18.5
	뮤지컬							
우석대	공연예술뮤지컬	20	32	1.45	13	13	1.00	▼ 0.45
중앙대	연극(연기)	3	234	78.0	-	-	-	폐지예정
	연극(뮤지컬)				-	-	-	
★중원대	연극영화학과	7	32	4.57	11	36	3.27	▼ 1.3
청주대	연극학과	19	524	28.0	49	558	13.53	▼ 14.47

23

- 다군

학교명	학과	2017년 정시			2018년 정시			2017년 대비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극동대	연극연기(연기)	17	512	30.12	15	244	16.27	▼13.91
	연극연기(뮤지컬)							
대전대	연극영화과	13	373	28.69	13	325	25.00	▼3.69
★목원대	연기뮤지컬음악학과	3	18	6.00	-	2	-	-
동양대	공연영상학부	52	582	11.19	41	482	11.76	▲0.57
명지대	뮤지컬공연전공	8	328	41.0	8	288	36.00	▼5.00
서경대	연기전공	26	1,404	54.0	25	1355	54.2	▲0.2
순천향대	연극무용학과	7	230	32.86	7	171	24.43	▼8.43
안양대	공연예술학과	10	492	49.20	11	360	32.73	▼16.47
★영산대	연기뮤지컬학과	1	3	3.00	1	5	5.00	▲2.00
인하대	연극영화과	6	282	47.00	7	309	44.14	▼2.86
전주대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	8	37	4.63	8	19	2.38	▼2.25
★평택대	공연영상콘텐츠학과 (연기전공)	5	164	32.80	5	120	24.00	▼8.8
	음악학과(뮤지컬)	3	33	11.00	3	23	7.67	▼3.33
한서대	영화영상학과	3	34	11.33	8	239	29.88	▲18.55

24

갭이어의 정의 및 목적

: 갭이어는 주로 중등교육과정의 졸업과 대학과정 시작 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며 갭이어 활동을 통한 학생의 성장에 목적을 두고 있음

정의

- 교육경로 및 교육경력의 과정 중 쉼(break)
- 주로 중등교육과정의 졸업과 대학과정 시작 전 사이의 기간
- 공교육 체제를 벗어나 자신의 진로 경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훈련, 체험 기간

목적

- 갭이어를 통해 학생들이 더욱 성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는 존재로 성장
- 갭이어를 통해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

출처 : Jones, A(200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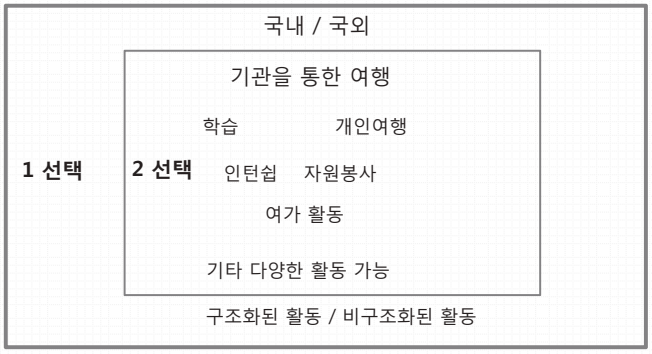
갭이어 활동 유형 분류와 선택 유형

지역	형태	활동 유형	세부 내용
국내/국외	개인/단체 장기/단기 기관/단독	여행	단일 지역 혹은 여러 지역을 경유하며 수행하는 여행이나 트레킹 활동
		학습	다른 지역의 언어를 배우거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통한 시민학습
		훈련 프로그램	새로운 기술이나 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 과정에 참여
		자원봉사	교육, 돌봄,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
	유급/무급	인턴쉽	새로운 직종에서의 직무 경험과 배움의 기회

출처 : www.yearoutgroup.org

26

갭이어 선택 유형



출처 : Jones, A (2004: 9)

27

해외의 갭이어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소개

(김정회, 2017)

영국	왕립음악원 One Year	갭이어 학생들은 1년간의 음악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이는 학위과정의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교육기회와 상담을 제공함.
	사우스샘프턴 솔렌트 Gap year 및 Curriculum Plus	갭이어를 장려하고 있으며, 연계하여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Curriculum Plus(C+)프로그램을 운영.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Bridge Year	독자적인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5개 해외 국가 중 한 개의국가에서 9개월 동안 대학이 지원하는 서비스에 참여함.
	플로리다주립대학교 FSU Gap year Fellow	갭이어를 보내는 학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얼마 되지 않는 미국 대학교 등 중의 하나임. 계획적인 갭이어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과정이 있음.
	오하이오주립대학교 Gap year	신청자로 하여금 1년 동안 자신의 입학허가를 연기하도록 해주고 있음.
	다트마스대학교 Gap year	여행, 일, 자신의 경험을 높이기 위한 갭이어를 보내는 학생들이 적극적 지원함.
일본	동경대학교 UTokyo's Gap year Initiative	1년 반 정도의 유예기간을 만들어 자원봉사, 취업체험, 외국유학 등의 경험을 쌓고 난 이후 대학에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제도.
	FLY 프로그램(Freshers' Leave Year program)	2013학년도부터 시작되었으며 학부생이 대학 입학직후 및 일반 학생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의 장기 개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28

국내 갭이어 현황

공공형	- '쉼', '프로그램', '여행', '경험/체험' 주로 청소년기관에서 재단이나 자치구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방식. - '오디세이 학교' 입시에 과몰입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1년 동안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됨.
민간형	- 주관하는 사업주체들의 취지 및 운영방식 등에 구분 되며, 한국 갭이어에서는 '여행', '봉사'. '체험'의 형식의 진행.

29

국내 갭이어 현황

- 국내의 갭이어의 특징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영국 갭이어의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이전의 시간과 시기적으로 구분된다. **국내의 매체들에서 다루어지는 갭이어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재학 중 ,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시기 이전, 혹은 취업 이후 퇴사 후의 상황에서 갭이어에 참여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조선일보, 2016.04.14; SBS, 2016,03.18).
- ㈜한국 갭이어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관을 통해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갭이어 **참여자의 비율은 대학생 33,7%, 직장인 28.5%, 취업준비생 15.2% 순으로(한국경제.2016.06.05.) 참여자의 약80%가 대학 진학 이후** 개인적 전환의 시기에서 갭이어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내의 갭이어 개념은** 고등학교 졸업시기의 학생들이 교육적 맥락에서 정규 교육 경로를 중단하고 진로 탐색의 시기를 갖는다는 사전적 의미의 갭이어 개념보다는 Jones(2004), King(2007)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더 긴 생애의 진로 궤적 안에서 전환의 시점을 맞이하여 성찰의 시간을 갖는 넓은 의미에서의 개념적 성격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30

참고문헌

- 김민선, 연규진(2014). 진로결정의 어려움 관련 정서 및 성격 척도의 한국 축소판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27**(3),65-94.
- 김정희(2017). 영·미·일 대학 갭이어 사례 및 시사점 분석. 비교교육연구 27(4), 196-174
- 안시준(2016). 여행은 최고의 공부다 Gap Year. 서울: 가나문화콘텐츠.
- 임재원(2018). 청년기 성인학습자의 갭이어(Gap Year)참여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커리어투어(2017). 청년의 진로탐색과 갭이어에 관한 기초연구. 2017 청년허브 기획연구
- 경쟁에 질렸어…인생 공백기 갖는 청춘들(2016.06.05.)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596071#AA.117877551> 에서 2016년 6월 5일 검색.
- 꿈의 직장 그만두고... 새 삶 찾는 '갭이어族(2016. 04. 14).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4/2016041400158.html>에서 2016년 4월 14일 검색
- 뉴스토리 갭이어(Gap Year)-잠시 쉬어가도 괜찮아.ft.(2017.03.18.). SBS.<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89778&plin k=COPYPASTE&cooper=SBSNEWSEND> 에서 2017년 3월 18일 검색.
- 통계청(2018). 2017년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
- 통계청(2018).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 조사.
- Gati,I.,Krausz,M. & Osipow,S.H.(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43,510-526.
- Gottfredson,L.S.(2005). Applying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Carr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Hobokin, NJ: John Willy & Sons. 71-100.
- Jones, A. (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Lofquist, L. H. & Dawis, R. V.(1991). Essentials of person-environment-correspondence counseling.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The End
Thank you
김희수
kimhs@hansei.ac.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국민 연구과제 제안 공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 분야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미래 인적자원개발, 중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 국가역량체계 및 자격제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교육훈련-노동시장 간 연계, 글로벌 직업교육훈련 등의 분야에 대하여 참신한 연구 주제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가 인재개발정책과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미래 일자리에 대비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연구기관'이라는 비전하에, 국가 인재개발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정책 연구를 비롯하여 자격제도,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관리 및 운영, 직업·진로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www.krivet.re.kr, 고객참여 ▶ 연구과제제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044-415-5015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온라인 청년센터

네가뭘좋아할지몰라서우리가왔다!

일자리 금융 복지 주거 공간 …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

온라인 청년센터란?

★ 청년정책! 공간정보! 통합상담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페이지

★ www.youthcenter.go.kr 또는 포털에서 "온라인청년센터" 검색

청년정책 정보

★ 취업지원 · 창업 · 금융 · 주거 등 청년 이용 가능한 정책 정보 150여개 제공

★ 개인 맞춤형 정보 검색, 키워드 검색 가능

★ 유사 정책 간 핵심 정책 정보 1:1 비교 기능 제공

청년공간 정보

★ 청년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정보 제공

★ 전국 90여개 청년 공간 정보 제공

★ 공간별 제공 서비스, 부대시설, 예약가능 여부 등 세부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 카카오톡을 활용한 실시간 정책 및 진로·취업 상담

★ 이용시간: 1년 365일 8시 ~ 22시

★ 상담방법: '온라인청년센터'홈페이지에서 '상담'배너 클릭

지금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속하셔서 카카오톡 상담을 받아보세요

(주) 학지사는 깨끗한 마음을 드립니다.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진로 · 창업역량 개발
-벤처스타-

김세광 · 현순인 공저

- 크라운판
- 312면
- 14,000원

진로취업 멘토링

주석진 · 한수혜 · 김세랑 · 이나빌 · 김미혜 공저

- 크라운판
- 240면
- 15,000원

대학생의 심리와 커리어 개발

최은수 · 신슬원 · 김한석 · 김민서 · 김진혁 · 박재진 · 신용국 · 연지연 · 이미섭 · 전규홍 · 한우섭 · 김영환 · 이홍원 · 이 희 공저

- 크라운판
- 360면
- 17,000원

전공탐색과 생애설계

윤명희 · 이정희 · 서희정 · 김정원 공저

- 사륙배판변형
- 432면
- 18,000원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침서
자기이해와 진로탐색

김희수 저

- 크라운판
- 176면
- 11,000원

2판
진로와 자기계발

유혜은 · 조규판 공저

- 사륙배판
- 400면
- 18,000원

대학생 인생설계 워크북
-나를 향해 떠나는 여행-

미야용 저

- 국배판
- 256면
- 11,000원

경력개발전략
-이론과 실제-

백지연 저

- 사륙배판변형
- 448면
- 18,000원

직업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과 진로설계

임경희 · 박미진 · 정민선 · 한수미 · 이홍범 · 김진희 · 홍지명 · 문승태 · 김수리 · 최인화 · 조봉환 · 이인혁 공저

- 크라운판
- 416면
- 18,000원

대학생을 위한 진로코칭
-전략과 실제-

천성문 · 김미옥 · 함경애 · 박열숙 · 문혜경 공저

- 사륙배판
- 232면
- 14,000원

심리학전문출판사 (주) 학지사 www.hakjisa.co.kr

KSCE 한국진로교육학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07호
e-mail : careeredu1@hanmail.net
home-page : http://www.careeredu.net